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1000-002339-0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에 따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에 따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해설서





제 1부 개요

I.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	006
II. 누리과정 제정	009

제 2부 총론

I. 구성 방향	014
II. 목적과 목표	018
1. 목적	018
2. 목표	018
III. 편성과 운영	021
1. 편성	021
2. 운영	024
3. 교수·학습 방법	027
4. 평가	032

제 3부 각론

I. 신체운동·건강	038
II. 의사소통	062
III. 사회관계	086
IV. 예술경험	110
V. 자연탐구	134

부 록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비교표

1. 신체운동·건강	162
2. 의사소통	165
3. 사회관계	167
4. 예술경험	170
5. 자연탐구	17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제1부 | 개요

I.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

II. 누리과정 제정

I | 누리과정의 도입 배경

01

5세 누리과정의 도입¹⁾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 출산율이 1.22명(2010년, 통계청)으로 떨어지는 등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규모가 감소되고 인구의 구조도 변화하게 되면서 노동력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만 5세 유아는 약 44만 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교육·보육의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이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하여 고가의 영어 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계층 간에 나타나는 큰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만 5세에서 만 2세까지 확대하고 전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 부담 비율은 79.7%로, 핀란드 90.6%, 프랑스 94.0%, 영국 86.1%, 미국 77.8% 등 북미 및 대부분의 EU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 부담 비율²⁾이 49.7%로 OECD 평균의 62%에 지나지 않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은 19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1년까지는 유아 학비·보육료의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대상도 소득하위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서 국가의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모든 유아 특히 만 5세 유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1)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2011. 5. 2)한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함.

2) 우리나라 공공 부담 비율에는 보육비 지원액은 제외되고 있으나 향후 포함할 예정임.



모든 만 5세 유아가 출발선상에서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최근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국가 지원 체제가 강화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생애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Heckman(2006)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 2003)는 유아 교육 1달러 투자 시 16.14 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약 17,000파운드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는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영유아기는 인지·정서·사회 영역 등의 기초 능력이 집중 형성되어야 하며, 이 시기의 발달 정도는 개인의 전 생애 학습에 대한 태도나 학습 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하여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 5세 공통과정」³⁾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만 5세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한다는 정책이다. 만 5세 유아는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으며 정부는 「5세 누리과정」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미루어 왔던 취학 직전 1년 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보장하는 의무교육 기간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에게 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의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의 도입은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

3) 「만 5세 공통과정」은 명칭공모를 통하여 2011년 7월 14일 「5세 누리과정」으로 공표됨.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무상교육·보육 정책」인 동시에 「만 5세 교육·보육과정」을 뜻함. 이하 만 5세 공통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통칭함.



02

누리과정의 3, 4세 확대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12. 1. 18)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3월에 도입한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3, 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제도)’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특히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만 3~4세 유아에 대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가도 만 5세 유아와 동일하게 매년 인상하여 2012년에는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2013년에는 22만원, 2014년에는 24만원, 2015년에는 27만원, 2016년에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만 3~4세 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은 2013~2014년까지 2년 간은 기존의 국고·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만 3~5세 유아들에게 유아교육·보육과정이 통합된 ‘3-5세 누리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학전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II | 누리과정 제정

01

5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의 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취학 전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의 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가. 전 영역에서 기본생활 습관과 창의·인성교육 강조

‘5세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과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하되, 이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5세 누리과정 전 영역에서 강조하도록 하였다. 기본생활습관 지도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이라는 별도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졌고, 창의·인성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탐구생활 영역과 사회생활 영역에서 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기본생활습관은 사회생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창의성 또한 탐구생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질병 예방과 관련한 기본 생활은 건강한 생활뿐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교육·보육 활동을 통해 강조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자연탐구 영역에서 만이 아니라 창의적 표현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경험 영역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인성 또한 사회생활 영역뿐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길러져야 한다. 이에 따라 5세 누리과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창의·인성 교육을 전통문화와 함께 특정 영역이 아닌,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고루 다루고 강조하도록 하였다.

나.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 선별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2007년 개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제 2차 개정) 중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5개 영역(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에 I 수준, II 수준, 공통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만 0~5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으로 6개 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에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대인 만 3~5세 유아를 위한 내용은 I 수준, II 수준, III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과 하위내용,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내용 범주와 내용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 수준별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5세 누리과정은 가능한 두 과정의 공통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교과 위주의 인지적인 학습 활동보다는 만 5세 유아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5세 누리과정은 기존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한 공통적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사람과 자연 존중의 가치관, 지속가능한 생태 환경의 중요성, 우리 전통문화와 세계 문화의 이해, 유아의 성·종교·가족 배경·신체적 특성·민족 배경에 대한 편견 배제 및 다양성 추구,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 등을 강조하였다.

다. 5세와 3~4세간 세부 내용 수준 연계

‘5세 누리과정’은 만 3~4세와 구분되지만 세부 내용 수준은 연계되도록 하였다.

만 3~5세를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수준별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유치원 교육과정의 II 수준과 공통 수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III 수준과 일부 II 수준~III 수준의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 3, 4, 5세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만 3~4세와 구분은 하되, 세부 내용 수준은 연계되도록 하였다. 특히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토대로 초등학교 1~2학년 군의 창의·인성 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여 만 5세 유아 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만 4세 이하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0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누리과정이 만 3,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3, 4세 누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2012년 3월부터 「3, 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구성·운영하였다. 5세 누리과정 제정 시와 동일하게 기존 교육·보육과정을 근간으로 3, 4세 누리과정을 제정하고, 이미 고시한 5세 누리과정의 내용 중 추가, 삭제, 수정 등이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6월에 3, 4세 누리과정 및 5세 누리과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5세 대상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동일하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고시하였다(12. 7월).

2013년 부터 적용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었다.

가. 총론의 구성체계와 내용 강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총론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강화하였다. 5세 누리과정 총론에서는 구성 방향, 목적, 영역별 총괄 목표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하여 3-5세 누리과정 총론에서는 구성 방향, 목적, 영역별 총괄 목표 외에 편성, 운영,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다.

나. 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과 구성 체계를 유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영역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하여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과 구성 체계를 가능한 유지하였다. 따라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 구성과 내용 범주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단, 전체적인 체계와 맥락을 고려하여 필요시 내용을 통합하거나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만 5세와 만 3, 4세간의 차별성 및 난이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 따라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에서는 3, 4세 누리과정의 새로운 제정과 함께, 5세 누리과정의 부분적인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누리과정을 완성하였다.

다. 영역별 목표 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만 3, 4, 5세를 동일한 목표로 제시하고,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하였다. 단, 만 3, 4, 5세의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상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3~5세 연령에서 공히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3~4세, 4~5세, 3~5세를 동일하게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학년군별 목표는 동일하게 설정하고, 성취기준은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는 학년군 교육과정의 성격과 형식을 취한 것이다.

라.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 지속 강조

5세 누리과정에 이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에 있어서도 질서, 배려, 협력 등의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녹색성장교육, 인터넷·미디어 중독예방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 유형과 문화, 국제화 등 다원화된 사회에서 미래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하위 연령대인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내용을 체계화하였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제2부 | 총론

- I. 구성 방향
- II. 목적과 목표
- III. 편성과 운영

I | 구성 방향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주요 구성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바른 기본생활습관과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 한다. 타인 및 공동체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한 올바른 인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과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커서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질서, 배려, 협력 등 실천 위주의 기본생활습관 지도와 인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지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의 내용뿐 아니라 성격 및 목표에도 이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급속히 변화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나 문제에 당면했을 때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실천해 보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유아 각자가 독창적이고 독특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타인과 다르게 다양하고 독특하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창의적 성향이 합해진 것이다. 이는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기초적인 사고 능력을 토대로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성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이 포괄적으로 고르게 발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경험은 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독특성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리게 된다.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자신만의 독특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개성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성장에 기초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따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조하되, 전 발달 영역에 걸쳐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하였다.

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한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지식 정보 능력을 넘어서서 시대적 문제인 인간 간의 소외 및 환경 문제까지도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기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유아기부터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계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 및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다.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타고난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가깝게는 부모, 형제, 이웃에서부터 멀게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연은 단순히 창밖으로 보이는 경관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존하

게 하는 기반이다. 사람을 포함한 자연 속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에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동시에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어야 한다. 자연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닌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개발해 간다면, 미래 사회에는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심각하게 고갈되어 갈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상호 교류와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져 온 우리의 문화이며, 이는 곧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우리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출발이며,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유아기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라. 만 3~5세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한다.

만 3~5세 유아는 동일한 발달 단계에 속하지만, 구체적인 학습 및 행동 특성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만 3~5세 유아를 위한 내용을 선정할 때에 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른 위계성, 계열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만 3~5세 유아의 연령별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은 학문적 지식 구조, 유아의 인지 발달 및 생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단, 영역별 내용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만 3~5세 연령대에서 모두 다루어야 할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만 3~4세, 만 4~5세, 만 3~5세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만 5세 및 만 4~5세에서만 필요로 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만 3세를 제외하기도 하였다.



마.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에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만 5세 유아의 발달과 생활 경험이 통합된 5개 영역으로 구성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주도하며 신체를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문제 해결 전략을 구안하여 활용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5개 영역에 걸쳐 유아의 주도적인 경험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공통과정이다. 즉,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3-5세 누리과정의 내용과 활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특히, 3-5세 누리과정 중 만 5세 연령에 해당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만 3세 연령 내용은 아래 단계인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이로써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연계되는 내용의 체계화를 이루었다.



II | 목적과 목표

01

목적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02

목표

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며,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하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하여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는 것은 튼튼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아기는 평생 동안 지속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건강, 안전 등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익혀 일



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어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유아기에 다양한 놀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언어 능력을 습득하고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탈피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유아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인이 정확한 발음과 언어 표현의 모범을 보여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언어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생활하는 능력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위기 극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첨단 통신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바람직한 사회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능과 태도를 익혀 건전한 사회·정서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라.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즐기는 태도를 형성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



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주변의 자연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다양한 소리, 악기, 여러 가지 재료, 신체 등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극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미감, 지각능력, 상상력, 표현력, 감성, 정서 조절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

유아는 아름다움에 대한 타고난 관심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고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마.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누리과정은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생활 경험을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선천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즉,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관찰, 분류, 실험하고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등의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타고난 호기심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격려하여 유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아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며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여 탐구하는 태도와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III | 편성과 운영

본 장에서 제시하는 편성·운영은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반(학급)을 위한 편성의 원리와 지침이다.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누리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적합한 교육내용과 활동을 선정하여 교육계획안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계획한 바를 유아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3~5세 누리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01 편성

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현재 유치원은 1일 3~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이후 시간은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고 있어 편성·운영 기준이 상이하다. 누리과정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체 일과 운영에 분리하여 적용하기보다 오전 3~5시간 동안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편성한다. 이 때 만 3, 4, 5세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보육의 내용과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며, 신체운동을 위한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시간 포함)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와의 친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하며 실외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5개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편성한다.

유아기는 전 생애에 걸쳐 성장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을 포괄하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리과정은 만 3, 4,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5개 영역별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하며, 유아가 재미있어 하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편중된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유의한다.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의 내용은 지도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영역의 내용을 시기와 상황, 필요에 따라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편성하며, 5개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가 서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누리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나눔, 협력 등 바른 인성 지도를 강조하여 비중 있게 포함하여야 한다.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커서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본생활습관과 인성 교육은 특정 주제에 한하여 일회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연중 전개되는 주제와 영역에서 계열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반복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유아의 발달 특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유아는 발달 특성상 문자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인 학습 방법보다 생활 속에서 사물을 직접 다루는 놀이 활동을 통해 가장 잘 배우므로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보육 활동을 편성한다. 유아는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가면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때 누리과정의 연령별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교육·보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 개인에게 의미 있는 일상생활 경험을 통한 지도는 누리과정의 개념이나 지식을 유아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며,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 수준 및 실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보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반(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누리과정은 단일 연령반(학급), 또는 혼합 연령반(복식학급)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반(학급) 및 개별 유아의 발달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반영한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고 편성해야 한다. 특히 혼합 연령반(복식학급)



의 경우 만 3, 4, 5세를 위한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 및 함께 할 수 있는 대집단 활동도 고르게 편성해야 한다. 연령별 발달 수준, 지식,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한 연령대의 유아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마.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이 없도록 편성한다.

유아들이 성별, 종교, 신체적 특성,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독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주제나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에서 뿐 아니라, 교사의 언어 사용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문화 관련 주제를 전개할 때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며 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한다.

유아가 고정적인 성역할 개념을 갖지 않도록 기존의 활동자료를 점검하여 활용하고, 특정 종교의 강조 및 주입을 지양한다. 또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획한다. 다문화 가정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같은 반(학급)의 유아에게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한다. 특히, 장애 유아는 각기 다른 장애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과 활동으로 편성해야 한다. 일반 유아에게 맞도록 편성된 과정을 적용하되, 참여와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 유아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바.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누리과정은 3~5시간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과는 기본과정, 방과후과정, 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과정이나 종일제에 다니는 유아는 오랜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게 되



02

운영

어 교육·보육의 질이 더욱 중요하므로 3-5세 누리과정을 심화하고 확장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보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기본 누리과정을 심화·확장할 때에는 지식이나 기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기본과정과 균형을 이루고 활동의 양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안한 휴식과 낮잠, 안전, 영양 및 건강, 바깥놀이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개별 유아의 특성이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집단 구성이나 운영 형태 등을 다양하게 편성한다.

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누리과정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작성된 계획안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 학기 초에 준비된 연간, 월간, 주간 계획이 유아의 흥미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특히, 일일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유아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전날 보였던 반응이나 당일의 상황 변화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누리과정의 운영은 교사 주도와 유아 주도 활동 간의 균형, 대·소집단과 개별 활동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누리과정의 활동이 5개 영역 중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일과 평가, 주별 협의, 월중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한다.

나. 실내·외 환경을 다양한 흥미 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사는 다양한 흥미 영역을 실내·외에 구성하여 유아의 활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흥미 영역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을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흥미 영역에 제시되는 활동이나 자료는 주간 및 일일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또한 발표, 토의, 게임, 관찰, 실험, 조사, 현장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여 유아의 학습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교사는 실내·외 공간의 기능과 위치, 크기를 고려하여 쌓기놀이, 언어,



과학, 수·조작, 음률, 미술, 역할놀이, 모래·물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흥미 영역을 구성할 수 있다.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도 다양한 흥미 영역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한다. 이 때 움직임이나 소음 정도를 고려하여 영역을 배치·운영함으로써 유아가 방해받지 않고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흥미 영역의 구성과 운영에서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아와 함께 협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유아의 능력과 장애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누리과정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격려하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거나 장애가 있는 유아 등 유아의 능력과 장애에 따른 차별이 없이 교육·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특수반(학급)과 일반반(학급)에서 장애 유아의 개별화 교육계획에 기초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교육·보육활동 계획 시, 장애 유아의 발달수준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활동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교육 상황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를 배려한 환경과 활동자료를 제공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장애 유아는 각기 다른 장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특별한 요구에 적합한 교육·보육 내용을 구성하고, 장애 유아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수·학습방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한다. 필요한 경우 장애 유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반(학급)별 활동이나 교재를 수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 유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는 부모이므로 부모가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한다. 또한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관계 전문가(치료자)들과 연계·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라. 부모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부모교육은 누리과정의 실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부모가 바른 부모 역할 및 유아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기술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부모교육은 가정과 기관 사이를 오가는 연락장이나 편지, 게시판 안내, 자유로운 대화, 대·소집단 모임, 수업

관찰과 면담, 자원봉사 활동, 부모참여수업, 그리고 의사결정 참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과 환경, 학급 연령 구성, 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며,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 일과, 교사 구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마.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교육·보육 활동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문화적·지리적 환경과 특성은 교육·보육 활동을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자원이 되며,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누리과정 운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하여금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에 기여하는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직업, 취미 및 특기를 가진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 인사들을 누리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역사나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보육 활동에 적절히 반영하고 역사적 유적지나 산업시설, 문화시설 및 대학과 같은 지역의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누리과정 운영 효과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치원은 교육청 및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및 보육정보센터로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 교사 재교육을 통해서 누리과정 활동이 개선되도록 운영한다.

누리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누리과정의 운영 평가에 근거한 교사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더욱 내실있는 누리과정 계획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협의회, 현장 연구, 수업 공개 및 참관 등과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체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유아 발달 및 교육·보육에 관한 직무 연수(교육) 및 승급 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의 경우 일반교사도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아특수 교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도록 재교육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시·도청,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정보센터나 한국보육진흥원 등은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역 연수 및 워크숍,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해야 한다.

03

교수·학습 방법

가. 놀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놀이는 유아의 생활이자 학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주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삶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익히고 사고를 확장해 간다. 놀이는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아가 정서적 긴장이나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의 기회가 된다. 따라서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놀이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인 의도가 중요하다.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가 자연스럽게 학습 경험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교사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의도하는 교육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며, 유아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계획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생활주제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를 준비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활동 주제에 몰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놀이 계획, 선택 및 수행,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유아의 흥미를 중심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활동은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며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자신이 흥미있어 하는 활동이 제공되었을 때 유아는 그 활동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관람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이를 통해 학

습이 일어난다. 활동의 주제나 내용이 유아의 관심 밖이거나 흥미가 없는 것일 때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유아가 보이는 관심과 흥미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교사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유아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유아의 흥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을 단편적으로 경험하기보다 흥미 있는 활동을 반복하고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활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한번 들려주는 것으로 그치면 유아는 주인공에게 잠시 흥미를 가질 뿐 몰입할 수 없다. 유아는 반복적으로 읽는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다른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관심과 이해를 확대해 나가며, 그림책에 몰입하는 즐거움을 갖는다. 따라서 교사는 생활 주제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어느 한 부분에 몰입하여 깊이 있게 알아가고자 하는 유아를 위해서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소재로 하여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습득하도록 한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해 간다. 지식은 유아가 습득하게 되는 사실, 개념, 정보 등을 말한다. 기능은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능력으로, 필요한 절차나 과정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유능성을 의미한다. 태도 및 가치는 가치판단, 감정적인 성향,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 흥미와 관련된 것이며, 어떤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특별한 양식으로 호기심, 자세, 느낌 등이 포함된다.

유아가 배워나가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아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이를 습득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는 발달 특성상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학습을 한다. 유아가 생활 속에서 하는 경험은 유아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유아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중심으로 지식, 기



능, 태도 및 가치를 배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학습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유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과, 친구관계 등에서 유아가 하는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유아가 습득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유아가 하는 경험을 학습의 장으로 연결할 수 있다. 즉, 유아의 수많은 일상적 경험을 학습 상황으로 이끄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있을 때 가능하다.

라.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는 교사나 또래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해 간다. 또한 제공되는 교육환경, 제시된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안에도 학습한다.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며 학습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핵심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교사가 유아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이 아니다. 유아와 교사, 유아와 유아가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배움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학급)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나와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에게서 배워나가는 반(학급)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사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유아-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할 때 유아의 연령, 사전 경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 3세 유아가 처음 기관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격리 불안과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배려하여 상호작용하며, 만 4, 5세 유아에 비해 오감을 사용한 직접적 탐색에 보다 중점을 두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 4세 유아는 생활·문화적 배경이 만 3세보다는 확장되며 조금 더 구조화된 시간 구성이 가능하므로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주제에 대한 이야기나누기나 대집단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만 5세 유아는 협동 능력과 규칙에 대한 인식이 발

달하며 선호하는 또래와 우정을 형성하기도 하므로 또래 간 상호작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마.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해 배워나갈 때 분리된 내용영역이나 분절된 교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 경험으로 배운다. 통합은 부분들을 전체에 관련시켜 결합해 가는 과정이며, 유아는 자신의 경험들을 통합하여 전인적으로 성장·발달한다.

주제중심의 통합은 유아의 흥미와 발달, 학습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5개 영역과의 관련되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유아는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들 활동들은 서로 연관됨으로써 주제에 대해 효과적이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여름’이란 생활 주제 아래에서 여름의 날씨를 알아보는 활동, 여름에 보이는 곤충과 식물을 탐색하는 활동, 여름철에 먹는 음식과 옷차림,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한 활동들을 통해 여름이란 계절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또한 날씨, 곤충과 식물에 대한 활동들은 자연탐구 영역, 아름다운 계절 풍경을 느끼고 즐기는 예술경험 영역, 계절 변화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둔 신체운동·건강 영역, 이들 활동들에 수반되는 의사소통과 사회관계 영역의 관련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활동들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사는 주제 전개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유아의 반응과 흥미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감으로써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바.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활동, 대·소집단활동 및 개별활동, 휴식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루 일과에서 교사가 계획하여 제공하는 교수·학습 활동은 실내 활동과



실외 활동,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휴식 등이 고르게 안배되어야 한다.

유아는 일과 중의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나 교실 외의 바깥 공간에서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받으며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실외 활동도 매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날씨 관계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게임이나 신체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야기나누기, 동시·동화 듣기,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이 활동성이 적은 정적인 활동을 한 후에는 게임이나 신체 활동과 같이 충분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개별 활동과 대·소집단 활동도 유아의 연령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실시되어야 한다. 만 3세 유아는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보다는 혼자서 하는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 초에도 대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과 소집단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만 5세 유아는 대집단에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지연하며 절제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사.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한다.

유아는 같은 연령이라도 각자 경험의 내용과 범위, 관심사, 학습 능력, 발달 수준, 가정의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 개개인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학습 방식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사는 유아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유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활동을 제공하고 교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유아가 동시에 같은 것을 하도록 기대하지 말고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능력, 학습 속도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또는 소집단, 대집단 등으로 집단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교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애 상태와 발달



04 평가

에 적절한 교육·보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사가 특수 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특수 유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는 특수 교육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 교육 대상으로 판단되는 유아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따른 개별 지도를 해야 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1) 운영 내용이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었는지 평가한다.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이 연령별로 경험해야 할 목표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5개 영역의 누리과정 내용에 근거하여 반(학급)에 맞게 일 년의 계획을 편성하고, 또한 계획된 내용에 근거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은 누리과정의 편성·운영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세부 내용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내에서 균형 있고 고루 경험되도록 편성되었는지, 연간 계획에서 일일 계획까지 일관성있게 연계되어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누리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누리과정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운영 내용 및 활동이 유아의 발달수준과 흥미·요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편적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내용에 근거하여 개별 반(학급)의 교육 및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기관의 지역적 특성 뿐 아니라 각 반(학급) 내 유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유아는 독특한 개인으로, 개인 내에서도 발달 영역간의 차이가 있고 기질, 학습 속도,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경험, 병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아 간에 서로 다르다.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및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러한 개인차나 경험 및 능력차를 반영하여야 한다. 계획안에 따라 운영할 때도 개별 유아가 모두 같은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차를 인정하고 유아 수준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차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의 흥미와 활동의 특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누리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된 활동의 유형에 따라 교수·학습방법이 다르게 선택, 적용되어야 한다. 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교사가 설명을 하였는지, 유아가 실험을 하였는지, 또래와 함께 토론을 하였는지 등 접근 방법에 따라 유아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몰입도 달라진다. 유아가 활동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활동 참여를 흥미로워하고 즐겁게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적합하며 유아의 사전 경험과 연결된 활동을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 경험하게 했는지를 평가한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한 놀이는 유아의 학습과 경험을 의미 있게 이끄는 주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또한 교사주도의 대집단 활동이나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정리정돈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실내·외 활동 등도 일과 중에 균형 있게 안배하고 각 활동에서 필요한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활동을 진행할 때 유아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하여 개방적이고 유아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4) 운영 환경이 유아의 발달특성과 활동의 주제, 내용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누리과정에 근거한 교육·보육 계획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에 부합하며, 계획된 활동에 적합한 환경 및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환경은 유아가 접하는 실내외 시설 및 공간, 현장학습 장소를 포함한 기관 외 공간, 시간 안배, 기관내외의 인적 환경, 흥미 영역에 일정기간 구비되는 기본 자료, 개별 활동을 위한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 적정 시간, 적합한 자료를 구비·제공해야 한다. 적합한 자료란 활동 내용과 관련되어 있되 질적으로 우수하고 흥미로우며, 안전하고, 유아의 발달적 특성이 고려된 것을 의미한다. 누리과정의 내용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러한 바람직한 환경이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한다.



5)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척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서 교육·보육계획안 내용을 분석한다. 즉 계획안에 누리과정의 5개 영역 내용이 포괄적으로 고루 포함되었는지, 계획에 따라 균형있게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계획안과 실시된 교육·보육일지를 비교 분석하여 유아의 흥미와 요구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수업 참관을 통해 계획된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유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는지, 교수-학습방법이 적절했는지, 상호작용 정도가 우수한지 등을 관찰하고 자신의 교수-학습방법을 스스로 평가해 보거나 동료나 선배 교사로부터 평가 내용을 들어본다. 교사가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나 질문 유형, 활동 진행 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신의 교수법에 대해 진단하고 누리과정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들에게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공신력있는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누리과정의 운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6) 운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이후 누리과정 편성·운영에 활용한다.

교사가 누리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하며, 실행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은 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이끌고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진행하며, 평가 결과는 운영 계획을 융통성있게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종합적인 평가 결과는 다음 해의 교육·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나. 유아 평가

1) 누리과정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유아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개별 유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유아를 평가할 때에는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되, 성취중심의 결과 평가보다는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아가 누리과정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나 태도를 보이고, 개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파악한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 변화 정도를 부모에게 알려서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보육 내용을 계획하도록 한다.

2) 유아의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만 3, 4, 5세 유아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과 소양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이를 경험한 유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유아의 일상생활과 누리과정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유아는 다양하게 편성된 하루 일과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누리과정 운영이 유아의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평가 또한 교육·보육장면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유아를 평가하고자 할 때는 특정 활동이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한 것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활동, 급간식 및 정리·정돈, 등원 및 귀가 등 유아가 참여하게 되는 일상생활과 교육·보육활동을 모두 고르게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한다. 또한 관찰을 할 때에는 반(학급)의 모든 유아를 고루 포함하도록 한다.



4)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유아를 평가할 때에는 여러 내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유아를 관찰하는 것이다. 하루일과에서 유아가 참여하는 놀이의 종류나 수준, 친구관계, 활동 몰입 정도, 일상생활 수행정도 등 관찰 가능한 여러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유아를 평가한다. 또한 유아가 참여한 놀이나 활동에서 유아가 만든 활동물, 언어나 음률 활동 동영상, 쌓기 구조물 사진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찰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유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부모와의 주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 기관에서 관찰하지 못하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유아를 평가하고 이를 기록해 둔다.

5) 유아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및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주기적으로 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과 누리과정의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또한 누리과정의 내용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아 평가를 기초로 개별적인 유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유아가 균형있게 성장·발달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부모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 평가 결과를 부모 면담자료로 활용하여 유아에 대한 정보를 가정과 공유하고, 가정에서도 이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가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전인발달을 지원하도록 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제3부 | 각론

I. 신체운동·건강

II. 의사소통

III. 사회관계

IV. 예술경험

V. 자연탐구

I | 신체운동·건강

01

성격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유아가 신체운동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체 및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시기 유아는 신체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또래 친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유아가 긍정적인 신체 인식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발달 수준이나 흥미에 적절한 신체운동 활동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기 기초 체력은 신체 조절 능력과 이동운동, 비이동운동을 통해 형성하는 근력,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협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후 아동기나 청소년기 체력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생활 형태의 변화로 유아의 신체운동 기회가 점차 줄어들어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식습관의 변화로 비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아기에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 재해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아가 다양한 신체운동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본 운동 능력을 형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다섯 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세 내용 범주는 주로 기본 운동 능력과 신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내용 범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통합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신체운동 활동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기본 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을 형성하고,



적절히 휴식하며 주변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 습관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한다.

02

목표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초 체력과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유아기는 활발한 신체의 움직임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며, 평생 동안 지속될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유아의 기본 운동 능력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유의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유아기는 오감을 통해 사물을 직접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 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이다. 감각 능력과 감각 기관의 활용 능력은 유아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초 능력으로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 및 인지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유아는 신체 각 부위를 움직임을 통해 신체운동 능력을 기르고 성공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사물과 주변 세계를 인식하며,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여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유아기는 신체 조절 능력과 균형감이 향상되고, 기본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기본 운동 능력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의 기초 체력은 기본 운동 활동을 통해 향상되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체력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기에 습득된 운동 습관과 태도도 이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을 통해 신체 균형과 여러 가지 움직임 요소를 경험해 봄으로써 신체 조절력과 균형감, 민첩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3)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유아기의 신체 활동은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유아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운동 능력을 키우며 신체운동 자체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유아의 발달 정도와 능력에 적합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가 즐겁게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과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유아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는 건강한 신체 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고 유아의 사회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유아가 자발적이며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실외 신체 활동이나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 등에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유아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후 아동기나 성인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는 질병에 대한 면역이나 저항력이 취약함은 물론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성인에 비해 약하므로, 이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신체와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며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



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유아 안전 사고의 위험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유아는 신체를 조절하거나 환경을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인 시설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라도 유아가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안전 사고는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주변의 위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주변 환경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 점검함으로써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안전 교육을 반복 지도함으로써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기는 물론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유아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비상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 구성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내용 범주는 ‘신체 인식하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내용 범주

신체운동·건강 영역에서는 유아가 신체 조절 능력과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신체 인식하기’는 감각 능력과 감각기관의 활용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는 신체를 움직일 때 균형이 맞게 바로잡는 조절

력을 기르고,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화시키며 움직이는 이동운동이나 제자리에서 다양하게 움직여 보는 운동을 통해 운동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는 유아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서의 다양한 운동 활동과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기초 체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이러한 신체운동 활동을 통해 유아가 즐거움을 느끼고 규칙적이며 자발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청결과 위생, 바른 식생활하기, 규칙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하기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놀이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교통규칙을 알고 지키며, 재난이나 사고 등 비상사태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용 범주	내용
신체 인식하기	•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 신체 조절하기 • 기본 운동하기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 몸과 주변을 깨끗이하기 • 바른 식생활하기 •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 질병 예방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하게 놀이하기 •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신체 인식하기

가)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는 유아가 여러 가지 감각적 차이를 경험하고 감각기관을 활용하거나 협응함으로써 사물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는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자극의 차이를 느껴보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며, 점차 감각기관을 서로 협응하여 감각적 차이를 보다 예민하게 구분하게 된다.

3세	4세	5세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기관을 인식하고, 활용해 본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는 유아가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등 오감각의 여러 가지 감각적인 차이를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감각 능력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주변의 대상이나 사물, 환경에서 나타나는 감각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 차이를 인식해 봄으로써 자신의 감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는 유아가 여러 가지 감각적 차이를 구분해 보도록 함으로써 감각 능력의 활성화를 돕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주고 이러한 자극의 차이를 느끼고 변별해 보도록 한다. 유아는 이러한 감각 정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주변의 대상이나 사물, 환경적 특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는 유아가 감각 기능을 토대로 대상이나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서로 다른 점을 인식해 보도록 함으로써 감각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여러 가지 감각 정보와 경험을 기초로 대상이나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구분해 봄으로써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감각기관을 인식하고, 활용해 본다.**’는 유아가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만 3세 유아는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활용하게 된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는 유아가 다양한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사물과 주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대상과 사물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탐색하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청각과 촉각, 또는 미각과 후각, 시각과 촉각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기관을 동시에 활용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는 두 가지 이상의 감각 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함으로써 주변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보다 잘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나)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각 부위의 명칭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적절히 움직여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기에는 신체의 각 부위를 움직이는 운동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유아는 신체의 다양한 움직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차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보다 잘 인식하게 되면서 신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체 움직임을 통해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3세	4세	5세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알고 그 기능을 탐색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신의 신체 기능에 대한 유아의 관심과 흥미는 건강한 신체 발달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만 3세 유아가 신체의 각 부분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신체



의 각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시도해 보면서 호기심과 기쁨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탐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자기 신체의 구조, 신체 각 부위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나 동작을 바꾸거나 몸을 이동하는 신체의 움직임에 능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유아는 신체 움직임에 필요한 부위와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서 어떤 동작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경험함으로써 자기 몸의 움직임에 숙달되어 간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유아가 신체의 움직임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한 유능감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는 신체 활동을 즐겁고 성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유아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 놀이 기구의 크기, 신체 활동의 난이도 등이 세심하게 고려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능력에 적합한 운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신체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안정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2)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가) 신체 조절하기

유아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 움직임을 유지, 조절하며, 다양한 신체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 각 기관의 협응력을 키워가게 된다. 유아기를 통해 신체 균형과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 감각기관과의 협응 및 소근육 조절이 요구되며, 연령별 신체 발달과 성장에 따라 근육의 협응과 조절의 정도는 다르다. ‘신체 조절하기’는 정지 또는 이동 시 무게, 움직이는 속도, 힘, 연속성 등을 고려한 몸의 조정 및 균형 유지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유아는 바른 자세, 여러 가지 운동 기능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기를 수 있다.



3세	4세	5세
신체균형을 유지해본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	신체 각 부분을 협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신체균형을 유지해본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 균형을 잡고, 이를 유지하는 능력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몸을 정지해 있거나 움직일 때, 신체의 균형을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균형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신체 균형감은 유아가 이후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을 발달시키는 데 기초가 된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는 유아가 원하는 동작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세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을 조정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내용이다. 평형판 위에서 앞뒤, 좌우로 기울이면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활동, 콩 주머니와 같은 물체를 머리 위나 신체 부위에 올려놓고 걸어 다니는 활동 등을 통해 만 4, 5세 유아가 신체 균형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갈 수 있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한다.’는 유아가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일 때 공간의 활용, 힘의 강약, 시간의 길고 짧음, 속도의 빠름과 느림 등 움직임과 관련된 요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빠르기와 지속성, 공간의 높고 낮음, 좁고 넓음, 신체나 도구의 움직임 조절에서 나타나는 강약, 세기, 움직임의 속도 등의 요소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조절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는 유아가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유아는 점차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만 4, 5세 유아가 동물이나 기구, 혹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두드러지는 움직임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신체로 표현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해 본다.’는 유아가 몸 전체나 팔, 다리 등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에 대한 조절력을 키우도록 돕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신체의 움직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므로, 빨리 달리 가속이 붙게 되면 멈추고자 하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멈추기가 어렵다. 걷기 활동을 변형하여 점점 빨리 걷기, 점점 천천히 걷기, 신호나 상황에 따라 멈추기 등의 신체 움직임의 조절과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유아가 자신의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신체 각 부분을 협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신체 부분을 서로 협응하여 신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상황에 맞추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체기관의 두 부분 이상을 협응하여 움직여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유아가 자신의 신체 부분을 협응하여 동작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는 유아가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 시각 능력의 발달을 기초로 눈과 손을 협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사물을 조작하는 동작을 통해 소근육의 힘과 조절력을 키우게 된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나 주변의 대상이나 사물의 특징을 시각 능력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인식하고 의도한 대로 소근육을 조절하여 목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는 유아가 플라스틱 볼트와 너트, 나사못 등 각종 도구를 사용하는 움직임으로 소근육과 조작 기술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소근육이나 눈과 손의 협응력의 발달을 기초로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조작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게 한다. 도구를 활용한 조작운동은 반드시 도구의 안전하고 바른 사용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본 운동하기

유아기에는 몸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달리기, 미끄러지기, 점프하기 등의 운동과 제자리에서 몸을 축으로 하여 장소를 옮기지 않고 움직여 보는 구부리기, 뺨기, 구르기, 흔들기 등의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운동 능력의 토대를 갖추게 된다. 연령별, 개인별로 신체 발달과 성장에 따라 기본 운동 능력의 토대가 다르므로 각자의 신체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이동운동과 제자리에서의 움직임 활동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3세	4세	5세
걷기, 달리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걷기, 달리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는 몸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화시키며 움직이는 동작으로 이는 운동 능력의 기본을 향상시킨다. 만 3세 유아에게 걷기와 달리기 등의 기본 동작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한다. 이 시기는 조절 능력이 능숙하지는 못하므로 악기나 특정 동작을 정해 놓고 멈춤 신호에 맞춰 멈추도록 하여 민첩성과 균형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는 유아가 걷기와 앞으로 달리는 것을 기본으로 뒤로, 옆으로, 지그 재그로 달리기와 한발 뛰기, 두발 모아 뛰기, 뛰어 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뛰기 또한 앞, 뒤, 좌, 우로 방향을 달리 하는 이동운동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만 4, 5세 유아는 속도와 리듬을 달리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리듬을 통해 표현력이 증진될 수 있으며 더욱 창의적인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본다.**’는 장소를 옮기지 않은 채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하여 만 3세 유아가 제자리에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동작과 포즈를 경험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이동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이동운동의 기본 기능이 먼저 숙달되어야 하므로 유아가 제자리에서 움직임을 탐색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움직임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도록 한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는 구부리기, 뺨기, 꼬기, 회전하기, 흔들기, 떨기 등의 다양한 동작으로 균형감각 및 평형성의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유아는 몸의 모양과 움직임을 다르게 하여 몸을 높고 낮게 넓고 좁게 둥글고 곧게 움직여 신체의 지각과 공간 지각을 익힐 수 있다. 만 4, 5세 유아는 이 시기에 다양한 크기나 빠르기의 비이동 움직임을 시도하고 이는 창의적 표현 활동의 기초가 된다.

3)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유아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는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체운동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습관을 갖게 된다.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에서는 유아가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으로써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운동 능력에 자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아의 신체운동 능력은 연령별, 개인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 스스로도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도 흥미나 능력에 차이를 보이므로 개인차에 적합한 신체 활동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3세	4세	5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유아가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게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리치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습관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만 3세 유아가 자신의 신체기량과 발달적 특성에 맞는 신체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해 봄으로써 신체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유아가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기초체력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를 지속하여 숙달시킴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한다. 또한 유아가 새로운 신체 활동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겨볼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유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집단 활동의 규칙과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신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간단한 규칙이 있거나 팀을 나누어 진행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만 3, 4, 5세 유아가 신체 활동에서 규칙을 지키고 팀원 간에 협동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운동 능력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신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유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과 잘 하는 신체 동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유아는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서로의 차이에 관심을 갖게 된다. 만 4세 유아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신체운동을 경험함으로써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 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는 유아가 자신과 친구들의 신체운동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또래 간 신체운동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태도는 유아가 다른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하는 데 기초가 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바탕이 된다. 신체운동을 할 때에는 유아들 간의 비교를 삼가고 누구나 잘 하는 부분과 덜 잘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유아가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제시한다.



나)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는 실외놀이터, 주변 공원이나 놀이터, 가까운 숲 등의 자연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실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달리고, 탐색하고 만져보며 쌓거나 파보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유아기에는 대근육활동을 포함하여 1일 바깥놀이 시간을 최소 60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아는 심신의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신체 발달과 운동 능력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3세	4세	5세
----	----	----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는 유아가 바깥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근육 발달을 돕는 내용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3, 4, 5세 유아가 날씨나 기온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바깥놀이 활동을 하도록 하여 신체 기능의 원활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유아는 바깥활동을 통해 걷고 뛰기, 기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기구를 타며 이동하기 등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혼자서 혹은 또래와 함께 즐기게 된다. 바깥놀이 활동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인근 놀이터나 공원, 지역사회 시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는 유아가 다양한 기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함으로써 대근육 운동 능력을 기르고,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기구 활용을 통해 거리, 높이, 길이, 빠르기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면서 조절 능력과 방어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3세	4세	5세
----	----	----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는 유아가 신체 활동 시 이용되는 공, 훌라우프, 줄넘기 등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해봄으로써 대근육 발달은 물론, 신체 유연성이나 근력, 근지구력 등 기초 체력



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가 기구를 이용한 신체 활동을 진행할 때 먼저 유아가 기구를 충분히 탐색해 보도록 하여 쉽게 실패하지 않고 즐기면서 기구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또한 만 3, 4, 5세 유아의 신체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4) 건강하게 생활하기

가) 몸과 주변을 깨끗이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하기’는 유아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로써 자신의 손과 몸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며, 나아가 유아가 생활하는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는 유아가 손과 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의 청결한 생활 습관은 자신의 신체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손과 치아의 청결은 건강 유지의 기본이 되므로 유아가 생활 속에서 항상 손과 몸, 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만 4세가 되면 이를 닦는다는 행위 자체보다 올바르게 닦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손과 이를 닦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간식과 급식 전 후는 물론이고, 화장실 이용 후, 미술 활동 이후와 바깥놀이 활동이나 산책을 다녀온 후,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지도한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에서 주변이란 좁게는 유아의 개인장을 비롯한 활동실을 말하며, 넓게는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비롯하여 유아가 이용하는 공공 시설이나 공간 등을 모두 일컫는다. 만 3세 유아가 주로 자신의 소지품과 생활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생활 속에서 정리 정돈의 경험을 반복 실천하게 함으로써 청결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스스로 정리 정돈하고 청결하게 하거나 유지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교구나 책걸상 정리, 놀이감 정리 정돈 등을 통해 교실을 깨끗이 정돈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등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한다.

나) 바른 식생활하기

‘바른 식생활하기’는 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적당량 먹고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고 구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유아가 바른 식사예절과 태도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본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유아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의 식품 선호도는 음식을 먹어본 경험에 의해 형성되므로 유아가 다양한 음식을 즐겁게 먹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는 질감이나 특유한 향이 있는 식품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아가 거부하는 식품을 조리 방법에 변화를 주어 제공하고, 식사 지도를 하도록 한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유아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게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 중에는 지나치게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점심 급식시간에 유아의 연령 및 개인차를 고려한 적정 급식량을 배식함으로써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건강과 영양과의 관계를 알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음을 알고 관심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아비만 등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만 3세 유아에게는 몸에 좋은 식품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지도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음식에 포함된 기본적인 영양분에 관심을 갖고, 신체 발달에 필요한 칼슘이나 비타민, 단백질 등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 생선, 야채, 과일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 4세 유아는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생활 속에서 유아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유아가 우리 몸의 건강과 영양 간의 관계를 알고 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한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야채나 생선, 고기, 과일, 유제품 등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아가 몸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 몸에 좋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는 유아가 바른 태도로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이다. 바른 식습관 형성은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 요소이므로 만 3세 유아에게 올바른 수저 사용법은 물론 식사 도중에 돌아다니지 않기, 음식을 꼭꼭 씹고 입에 넣은 상태로 말하지 않기, 입술을 붙이고 소리나지 않게 씹기 등 식사 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는 유아가 식품의 생산과 공급, 조리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이해함으로써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 바른 식사 태도는 물론 자신이 먹을 만큼의 음식을 가져와서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또한 우리가 남긴 음식의 처리나 그로 인한 환경 문제와 경제적인 손실을 이해하게 하고,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다) 건강한 일상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는 유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 배변 습관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진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는 유아가 활동 후 휴식을 취함으로써 생리적인 피곤을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는 잠자는 동안 낮에 경험했던 사건을 재구성하고, 성장 호르몬도 생성되므로 수면이 중요하다. 만 3~5세 유아의 권장 수면시간은 낮잠을 포함하여 10~12시간 정도이다. 만 5세 유아는 생리적 특성이나 활동량, 밤잠 시간 등에 따라 피곤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낮잠 지도에서 개별적인 요구를 고려하도록 한다.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유아는 조용히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생활에서 휴식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게 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만 3, 4, 5세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는 유아가 배변 욕구를 느낄 때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자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어떤 활동에 몰입하다보면 용변의 욕구를 느끼면서도 화장실에 가야 함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함을 지도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는 유아가 화장실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알고 배설 후 스스로 뒤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대소변을 지나치게 참거나 미루지 않고, 배변의 욕구를 느낄 때 스스로 배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또한 만 3세와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내리는 등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진다.’는 아침에 일어난 후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개인 위생과 건강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에게 규칙적인 배변습관은 건강의 기본이 됨을 이해하게 하고, 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

라) 질병 예방하기

‘질병 예방하기’는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유아가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하며,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조절하여 입게 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는 유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할 내용으로 질병의 위험을 알고 예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만 3세 유아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거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몸을 청결히 하는 등의 내용을 알고 주의하도록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는 유아가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지키게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편식을 하지 않고 몸과 주변을 청결히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유아를 위한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를 부모교육이나 가정통신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외부 날씨나 기온에 적절하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날씨나 기온에 맞게 옷을 입고 벗는 일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게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계절의 기후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환절기에 기온 변화가 심하여 옷차림이 적절하지 못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만 3세 유아는 스스로 외부 온도나 날씨에 알맞게 옷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사가 적절히 도와줌으로써 유아가 날씨와 계절에 적절하게 옷을 입거나 벗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는 날씨와 계절뿐만 아니라 바깥놀이이나 조형 활동을 할 때 등 특별한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는 태양열이 강한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모자를 쓰게 하고 땀을 흘린 뒤에는 몸을 깨끗이 닦고 젖은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교사는 유아가 날씨나 상황에 적절한 옷차림은 활동을 편리하게 하며, 건강도 유지하게 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5) 안전하게 생활하기

가) 안전하게 놀이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는 실내·외 여러 가지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며, 전자 미디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안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유아에게 실내·외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안전한 사용법 및 규칙 등을 알려 주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외 놀이터에서 놀 경우 모자나 끈달린 옷을 입지 않거나 신발을 바로 신는 등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복장도 포함한다.



교사는 만 3, 4세 유아에게 놀잇감이나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 주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유아에게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안전한 사용법을 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 5세 유아가 실내·외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지 등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 유아는 발달 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나 탐구하려는 충동은 강한 반면 아직 신체 기능의 미성숙으로 운동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에게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안전한 사용 규칙에 대해 의논하고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지켜서 놀이하도록 지도한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안다.**’는 유아가 실내·외 놀이 장소에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 장소를 알고 안전하지 못한 곳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요인들이 미리 제거된 안전한 놀이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에게 찾길이나 도로변과 같은 위험한 장소를 알려주어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놀이 장소를 알려주어 유아가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는 유아에게 안전한 놀이 장소를 알려주고 놀이하도록 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유아와 함께 실·내외에서 안전하고, 위험한 장소를 알고 구분하며, 질서를 지키는 등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게 지도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 위험한 장소 및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지키면서 놀이하도록 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유아에게 올바른 전자 미디어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에게는 정해진 시간에만 바른 자세로 앉아 사용하는 등 전자 미디어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교사는 적정 시간을 지켜 전자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는 전자미디어의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자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는 생활 속에서 전자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 및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할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경험해 본 전자 미디어의 위해성 및 대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전자 미디어 안전 교육은 반드시 가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는 유아가 교통안전 규칙의 중요성과 자동차 사고의 위험을 알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는 유아에게 안전보행이나 도로횡단 등의 각종 교통안전 규칙을 알려주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에게는 등·하원 길의 안전과 골목길에서의 안전 보행에 대해 알려주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안전 횡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실천해 보도록 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는 교통 규칙을 알려주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통안전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알고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 교통안전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하면서 평가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적인 교통 표지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알고 지키도록 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유아가 기본적인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

용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가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승차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안전수칙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점차 대중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유아가 자율적으로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과 재난 및 사고 등의 비상 상황을 알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형성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유아에게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만약의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알려주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교사나 주변의 믿을만한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때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상황극을 통해 연습함으로써 유아가 실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아동복지법에 성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성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지도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는 유아가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발생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는 영상물 홍보자료, 방송이나 신문기사, 그림자료, 동화 등을 통해 유아와 함께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논하고, 의논한 대로 실천해 보도록 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는 유아에게 태풍, 홍수, 지진(해일), 화재, 폭염, 폭설, 한파, 방사능 등에 대비한 재난 대피 방법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어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만 3세 유아에게는 대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사의 안내대로 따라하도록 한다. 이 때 유아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수업시간에 대피 훈련을 연습해 보도록 한다. 또한 유아에게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추락, 전기, 약물 등)을 알려주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는 유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대피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는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고,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지도한다.

Ⅱ | 의사소통

01

성격

의사소통 영역은 언어의 기본 형태인 구어와 문어를 활용하여 나와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상황과 상대방에 알맞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또한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읽기와 쓰기에 흥미를 가져 언어 사용을 즐기도록 하는 영역이다.

유아기는 구어 사용 능력이 급격히 확장되고, 문어 사용에 대한 흥미와 이에 대한 기초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영아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표현이 줄어들면서, 유아기에는 주변 생활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이를 적합한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문장 내에 숨겨진 상대방의 의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적절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림책이나 인쇄물처럼 철자로 이루어진 다양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네 가지는 말과 글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서로 연관 지어서 경험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며, 읽고 쓰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아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며, 타인이 보낸 의미를 잘 해석하여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복잡한 언어체계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전달한 구어나 문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듣는 기회로 활용하고, 생활 속의 환경인 재물을 자주 접하도록 하며 정확하지 않은 말과 글로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를 존중해주어 즐거운 언어 사용이 되도록 격려해 준다. 또한 유아가 그림책의 이야기 내용에 집중하도록 하여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유아가 즐겁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말과 글의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타인이 말과 글로 전달하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유아기는 말의 조음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다. 만 3세 때는 어휘가 약 1,000개 정도이다가, 만 5세가 되면 약 2,200개 정도로 2배 이상 급증한다. 만 3세 때는 3~4개 낱말로 된 단문의 문장을 만들지만 만 5세는 점차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만 3세 유아는 많은 질문을 하고 이에 답을 하지만 ‘왜?’, ‘어떻게?’라는 질문은 잘 이해하지 못하나, 만 5세 유아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만 3, 4, 5세 유아는 인쇄물의 글에 흥미를 보이고 다양한 그림책이나 본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 이름 글자 쓰기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 3, 4, 5세는 아직도 몸짓, 표정, 억양 등의 비언어적 사용에 많이 의존하여 말과 글을 이해한다. 유아기에는 주변에서 친숙하게 경험한 사건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낱말과 문장을 읽거나 쓰도록 과제를 주는 것은 만 3, 4, 5세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읽거나 쓰기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고 그 과정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말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는 등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는 자기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가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듣고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활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교사나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와 다양한 듣기 활동을 통해 유아는 낱말, 문장, 문장과 문장의 관계 등을 이해하게 된다. 유아는 아직 잘 모르는 낱말이 사용되거나 복잡한 문장일 경우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말하는 사람의



표정, 시선, 몸짓을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유아가 상대방이 전하는 이야기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유아는 생후 처음으로 울음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다가 점차 어휘가 급증하고 문장을 구성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발달해 간다. 말하기에 적절한 음성의 높낮이와 속도, 예의에 맞는 말하기 태도도 유아기에 증진되어 간다. 그러나 ‘버스’를 ‘버드’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조음능력도 아직 완성되지 않고 복문 사용도 어려워한다.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유아가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되,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유아의 말하기는 곧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담고 있으므로 유아가 다양한 사전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3)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유아는 주변 환경에서 글이 있는 인쇄물이나 그림책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듣게 되면서 글자와 책에 친숙해진다. 글은 말과 달리 글자라는 언어부호 체계로 나타내고 있어 이를 해독하기에 어려울 뿐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등 관련된 맥락이 없기 때문에 유아가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쓰여진 글을 누군가가 말로 변환해서 전달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아는 이 과정에서 글자 자체보다는 글의 구조나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인쇄물이나 글자들을 접하거나 그림책이나 동시, 동요 등의 내용을 자주 들으며 즐거움을 경험하여 읽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한다.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유아기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철자로 쓰거나 베끼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제이다. 유아는 글자 비슷한 형태로 꼬



03

내용 구성

적이거나 몇 글자 옆에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유아는 말로 전달하는 것처럼 글로 나타내어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흥미를 나타내고 다양한 쓰기 시도를 하게 된다. 유아가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완전한 철자법대로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쓰기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주변에서 성인의 쓰기 모델을 자주 접하면서 말과 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고 가장 친숙한 자신의 글자를 써보는 것을 즐기도록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나타내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가. 내용 범주

의사소통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내용범주로서 각 범주는 서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행동이거나 밀접히 연관된 내용이다. 유아가 듣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듣다가 다음 순서에서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말하면서 쓰거나,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즉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질문을 하기도 한다.

‘듣기’는 일상생활에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좀 더 긴 구조를 지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중에서 형식을 지니고 있는 동요 · 동시 · 동화를 듣고 이해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둔다.

‘말하기’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을 말하거나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며, 듣는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바르게 말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읽기’는 주변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고 자주 보았던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며 책 읽기를 즐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쓰기’는 자기 이름을 쓰는 데 관심을 보이고, 말이나 생각이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 글자와 비슷한 형태 등으로 표현해 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만 4, 5세는 쓰기 도구를 사용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내용 범주	내용
듣기	•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기	•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 읽기에 흥미 가지기 •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쓰기 도구 사용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듣기

가)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는 유아가 낱말의 발음 듣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점차 비슷한 발음을 더 잘 구별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일상생활 및 여러 상황에서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별 낱말의 발음을 주의 깊게 듣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이해 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이 모두 급증하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표현 어휘는 이해 어휘보다 몇 배 정도 적다. 유아는 낱말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경험을 통해



서 자신의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를 향상시켜 나간다. 교사는 언어모델이 되어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낱말이 어떻게 발음되는가를 들려주고, 유아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눈짓이나 표정 등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는 유아 자신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과 비슷한 발음의 다른 낱말을 듣고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만 5세는 비슷한 발음이 들리더라도 문장의 맥락 내에서 발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낱말들의 발음 구별은 의미 구별과 함께 이루어진다. 자발적이고 즐거운 언어놀이를 통해서 비슷한 발음 구별이나 말의 운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유아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친숙한 사람 및 주변 환경과 관련된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며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는 유아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사물 명칭, 친구 이름, 반복적인 일상 행동(치우기, 닦기 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문장(예: 태극기가 펄럭인다), 사물이 지닌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등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는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접하게 되는 낱말과 문장의 뜻을 더 잘 이해한다.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문장 범주를 약간 넘어서, 현장체험에서 얻은 새로운 행동이나 지식 관련 어휘, 좀 더 긴 문장, 친구의 경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다양한 낱말이나 문장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만 5세는 또래와 서로 경험을 주고 받거나 다양한 견학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확대해 가면서 새로운 낱말의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유아가 새롭게 알게 된 낱말과 문장을 일상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나)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는 낱말과 문장이 좀 더 길게 연결된 이야기의 내용을 유아가 관심 있게 듣고 그 이야기 속의 사건이나 느낌 등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만 4, 5세 유아는 사물, 사람, 사건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연스럽게 교사나 또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기초적인 태도를 말한다. 만 3세 유아는 집중 시간이 짧고 타인 입장에서 사건을 보거나 타인의 감정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인공의 감정이나 사건의 순서 및 인과 관계 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흥미로운 주제이거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재미있다고 느끼면 내용 이해가 어렵다 해도 관심 있게 듣고자 시도한다. 만 3세에게는 흥미로운 주제나 친근한 경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는 다른 사람이 전달한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알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된 것이며, 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이야기 속에는 주제, 관점, 배경, 주인공, 사건의 인과관계 등이 복잡한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만 4, 5세 유아가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만 4세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간단한 이야기의 주제나 내용을 조금씩 파악하고, 만 5세가 되면 좀 더 복잡하고 길게 연결된 이야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사건이 벌어진 이유, 주인공의 동기나 정서 등 많은 내용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다. 만 4세는 무엇-질문이나 누구-질문은 물론 어디-질문도 잘 이해하며 묻고, 만 5세가 되면 왜-질문, 어떻게-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들으며 생기는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은 만 4, 5세 유아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는 동요, 동시, 동화와 전래동요를 자주 접하는 경험을 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어 이를 즐기도록 하며, 반복하여 들었던 것들을 유아가 이해하는 내용이다. 동요, 전래동요, 동시, 동화를 자주 듣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말의 재미를 느끼도록 한다.

3세	4세	5세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는 만 3, 4세 유아가 다양한 장르의 문학 세계를 경험하고 이를 그림책 뿐 아니라 그림자 동화, 손가락 동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들으면서 그 내용을 더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요, 동시, 동화는 누군가 흥미롭게 의도적으로 구성해 놓은 이야기이다. 문학작품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반복하여 듣는다면, 유아는 이야기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를 서로 교감하게 되고, 이야기를 또 다시 읽고 싶다는 동기를 갖게 된다. 또한 그림과 글 내용이 일치되면서 문학적, 예술적 수준이 높은 그림책 동화는 유아에게 상상력과 아름다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별, 소집단으로 자주 듣거나 다양한 매체로 전환하여 유아가 직접 참여하며 듣고 이를 즐기도록 한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는 같은 글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반복하여 들을 경우 이야기 전개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 전개를 눈과 손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테이블 동화, 손가락 인형 동화 등은 주인공들끼리 서로 나누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말하게 되고,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이나 거리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이야기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림자 동화는 주인공들의 색다른 움직임이나 크기 변화를 통해 이야기의 상상력이나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다. ‘폐굴폐굴 도토리가 어디서 왔나’라는 동요 가사는 벽을 타고 폐굴폐굴 굴러 떨어지는 도토리와 답는 통아래에 노랫말을 붙여준다.

‘전래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는 전래동요나 동시, 동화를 들으면서 그 속에 포함된 우리말의 반복적 운율, 아름다운 우리말 경험, 부모나 할머니 등 세대 간의 연결 등을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는 말의 운율이나 흥미로운 구절의 반복 등에서 재미를 느끼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동요나 유아의 생활에서 우리말의 재미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라) 바른 태도로 듣기

‘바른 태도로 듣기’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유아가 그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끝까지 듣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는 듣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시선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정하여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는 내용이다. 전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집중 능력이 짧은 만 3세의 경우, 유아가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 몸짓, 입모양 등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의 듣기 주의집중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함은 물론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 낱말, 문장, 담겨진 의미를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듣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에 좀 더 오랫동안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새롭고 아직 관심이 없는 내용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내용을 소개하고 그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된 경험을 사전에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을 유아가 끝까지 집중하여 듣는 내용이다. 만 5세가 되면서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다양한 낱말이나 문장에 대한 이해도 향상된다. 따라서 좀 더 긴 이야기라 하더라도 사건의 인과 관계, 이야기 속에 내포된 의도, 이야기에서 사용된 낱말과 문장 등을 고려해가며 끝까지 집중하여 듣도록 한다.



2) 말하기

가)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는 주변에서 들었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조음하여 발음하는 것과 여러 사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는 문장으로 말하되, 간단한 문장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장으로 발달해 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말한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한다.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친숙한 낱말을 발음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주변의 친숙한 낱말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낱말을 말해야 할 때, 발음해 보는 경험을 통해 말소리를 발음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는 주변의 친숙한 낱말을 이전 시기보다 더 정확하게 발음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자신이 이미 뜻을 이해하고 있는 친숙한 낱말들을 정확하게 발음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유아가 ‘가이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으며 가위를 ‘가이’라고 말했을 때 교사는 유아 발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가위가 여기 있네’라고 말하기 모델을 보여 주고, 유아가 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는 낱말과 문장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만 5세가 되면 몇 가지 발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음 능력이 발달되어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만 3, 4세에 경험했던 친숙하고 발음하기 쉬운 낱말들의 발음을 기초로 하여 만 5세 유아는 점차 발음하기 더 어려운 낱말도 정확하게 발음하고 나아가 정확한 발음으로 문장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는 유아가 새로운 낱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주변의 친숙한 낱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점차 기존의 낱말을 확장시키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한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말한다.’는 유아가 새로운 낱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장시킨 다양한 어휘를 실제로 활용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다양한 낱말을 알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낱말을 듣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는 한 상황을 다양한 낱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한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는 유아가 이전 시기에 습득한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언어 능력이 계속 향상되어 언어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를 대부분 습득하게 되고, 새로운 낱말의 습득으로 어휘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만 5세 유아는 다양한 놀이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낱말과 상황에 맞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유아는 친구와 의견을 주고 받기, 도움을 청하기, 동생을 도와주기, 응급상황, 질문하기 등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말하는 능력이 향상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는 유아가 낱말들을 조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친숙한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교사가 사용하는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듣고 유아는 낱말의 단순한 나열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만 3, 4세 유아는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갖고 확장시킨 다양한 낱말들을 주어와 동사로 구성된 간단한 문장 구성에 활용해봄으로써 점차 복잡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한다.’는 이전 시기에 간단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 유아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점차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바르게 말하는 내용이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낱말의 사용이나 의미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게 되고, 만 5세가 되면 대부분의 문법에도 숙달하게 된다. 교사가 비슷한 말, 반대말, 단



문, 복합문 등 문법적 요소를 갖추어 말하는 것을 듣고 유아는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여 말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는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아가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주제, 상황, 대상에 적합하게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또한 유아가 주제를 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로 지어 말하고 즐기는 것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을 기르는 내용을 포함한다.

3세	4세	5세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자유롭게 말해 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한 두 낱말로만 자신의 느낌을 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문장이나 이야기의 구성하기보다는 경험에 바탕을 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는 유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이전 시기에 말해 본 능력을 기초로 하여 만 4세 유아는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요구 등을 새롭게 알게 된 낱말을 사용하여 주제, 상황, 대상에 적합하게 말로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의 어휘력은 급격히 늘어나 다양한 낱말로 여러 형태의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전 시기에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간단한 낱말과 문장으로 구사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한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유아가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력과 이해력이 향상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주제를 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묻고, 대답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경우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 5세는 자기중심성이 조금 더 강한 만 4세보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한다.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경험이나 마음속 상상에 기초하여 여러 사건을 생각하고 사건간의 인과관계를 연결하여 좀 더 긴 구조의 이야기를 지어 말하는 내용이다. 만 4세가 되면 유아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그림책에서 읽은 내용, 어떤 사물, 상황, 현상 등을 상상하여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지어 말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처음에는 이야기의 사건과 다음 사건 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짓지만, 점차 시작과 끝, 사건과 사건, 사건과 해결과정 등이 밀접히 연결되고 새로운 생각이나 사건을 이야기 흐름에 적합하게 첨가해 가기도 한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는 유아가 이야기의 구조에 맞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지어 말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림책 결과 후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마음속에 상상하는 일 등을 토대로 이야기를 지어 말하거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꾸며 말하는 것을 즐긴다. 만 5세 유아는 이야기 지어 말하는 것을 즐기면서 다양한 문학적 요소를 경험하고 언어적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지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이야기를 서로 듣고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 때 교사는 유아의 이야기를 받아 써 주고 이를 다시 읽어 주어서, 유아가 ‘글자로 쓰기’나 ‘쓴 글 읽기’에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와 노력을 모두 써버리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는 유아가 때와 장소, 대상과 상황을 고려



하고 말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차례를 지켜 말하며, 점차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아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세	4세	5세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차례를 지켜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는 유아가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고려하여 말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점차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하여 말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는 유아가 듣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기보다는 종종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시선을 여러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말한다.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만 3세 유아는 우선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차례를 지켜 말한다.**’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차례를 지켜 말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우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는 손을 들어서 말하는 순서를 정하고, 자기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말하기 등과 같은 이야기나누기 규칙을 서로 지켜야 함을 알고 이러한 태도를 기르도록 지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때와 장소, 대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때와 장

소, 대상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와 강약을 조절하고 또래, 선생님, 부모 등 대상에 따라 존댓말이나 상대방에게 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아가 시장, 병원, 박물관 등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다른 친구의 부모나 동생을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알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함을 알고 다양한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는 유아가 우리나라의 고운 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아들이 유행어나 신조어 등을 자주 접하고 이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는 주변 사람들의 말하기 모델이 중요하며 가정과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여 사용하게 되는 만 3, 4세부터 시작하여 사물과 상황에 적합한 낱말과 문장으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만 5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길러야 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예절이다.

3) 읽기

가)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는 유아에게 글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친숙한 글자를 자주 찾아보고 이러한 글자에 흥미를 갖고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이다. 또한 글로 된 인쇄물이나 그림책을 교사가 자주 읽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글을 자신도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는 유아들이 읽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먼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인쇄물이나 친숙한 글자를 놀이처럼 찾아보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자신과 가족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고, 친구 이름, 길거리 간판, 우리반 이름, 화장실, 비상구 등 자주 접하는 사물과 사건,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글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림책이나 신문 등에서 익숙한 글자를 발견하면 유아는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경험은 만 3, 4세 유아로 하여금 말소리처럼 글자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는 유아가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찾아 여러 가지 그림이나 주변 단서를 이용해 글자를 읽어보는 내용이다. 만 5세가 되면 유아들은 친구들의 사진 위에 붙여진 이름표나 놀잇감에 쓰인 이름을 보면서 글자를 추측하여 읽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한 우유, 치약 등의 상표를 찾아 읽을 수 있다. 교사는 주변의 다양한 환경인쇄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점차 글자의 기능을 알고, 친숙한 글자를 스스로 읽어보고자 할 때 이를 격려한다. 그림카드나 학습지처럼 글자를 분절하여 공부하듯 글자 읽기를 가르치면 유아는 오히려 글자 읽기에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유아는 이후에 더 어렵고 긴 글을 접했을 때 그 내용을 읽으려 시도하지 않으며, 글에 흥미를 나타내지 않게 된다. 만 5세 유아가 주변 간판, 광고지, 우유나 치약상자에 있는 환경인쇄물 글자, 포스터, 현수막 등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는 글자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개별적으로 읽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는 유아가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상황이나 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즐기며 다음에 나타날 상황을 추측해 보기를 즐긴다. 발달에 적합하고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읽을거리는 유아로 하여금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함께 몸으로 놀았던 전래동요 가사를 그림으로 그려 제시한 노래판, 실물과 함께 제시한 동시, 좋아하는 이야기 책 같은 것에 유아는 관심을 높게 보인다. 교사는 대집단보다는 소집단이나 개별로 친근한 인쇄물의 글을 읽어주고 유아가 그 내용에 흥미를 갖도록 매일 규칙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 본다.’는 유아가 성인이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자 시도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유아가 읽을 수 있는 짧은 낱말이나 구를 시도해 보도록 격려하고 교사가 읽어

주었던 내용을 상기하며 유아가 읽기를 시도해 볼 때, 서투르더라도 문장 중 유아가 읽은 부분에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만 5세가 되면 그동안 읽으려고 시도했던 행동을 멈추고 “난, 못 읽어요”라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이 잘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절이다. 이런 경우 교사가 규칙적으로 더 자주 읽어주고, 유아가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낱말만을 읽어보도록 격려하며 유아가 조금만 참여하여 읽어도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면 다시 읽어보고자 적극 참여하게 된다.

나)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는 책에 흥미를 가지며 그 흥미를 바탕으로 책 보는 것을 즐기며 책의 소중함을 아는 내용이다. 주변의 그림을 단서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며 양질의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경험은 책의 가치와 재미를 알게 해 주고 책보기를 즐기게 해준다. 또한 책이 즐거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만 4, 5세 유아에게는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찾아보는 내용을 포함한다.

3세	4세	5세
책에 흥미를 가진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책에 흥미를 가진다.’는 읽기 발달에 중요한 도구인 책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가 선택한 책을 매개로 소통을 하여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며 책 펴는 것에 흥미를 보이는 것은 책읽기의 가장 기초가 된다. 교사는 다양한 내용이나 형식의 책을 구비하여 만 3세 유아로 하여금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는 유아들이 책 보는 것을 즐기면서 재미를 느끼고 책의 가치를 알아 소중히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읽고자 하는 요구가 많아진다. 교사는 주제와 계절에 맞게 정기적으로 책을 교체해 주고 창작동화, 전래동화, 과학동화 등 여러 장르의 책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가정과 기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도서 대여 프로그램이나 부모 독서 교육, 지역 도서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유아 주변이 읽기 모델을 보여주어 유아가 책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을 본 후 제 위치에 가져다 두기, 찢어진 책 보수하기, 책 빌려가고 제 날짜에 돌려주기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이 함께 보는 책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는 책의 내용 요소인 그림을 통하여 책의 내용을 추측해 보며 책읽기를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책 속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 구성을 하고, 그림을 구석구석 보면서 이야기 줄거리를 추측해 보기도 한다. 교사는 유아가 그림을 보고 질문을 하거나 책의 내용을 추측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 생각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만 3세 유아에게는 그림과 글이 일치되면서 그림이 상황을 잘 설명하며 중요한 내용을 엮어가는 책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는 책의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그림을 단서로 이야기 줄거리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는 책의 그림을 단서로 주인공, 사건과 사건의 연결, 배경, 사건 해결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만 5세 유아는 그림은 물론 책에 써있는 친숙한 글자를 조금씩 읽을 수 있다. 글자를 읽는 데에 정신에너지를 쏟게 할 경우 책의 이야기 전개과정에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책의 내용에 적합하고 잘 어울리는 그림이 있는 책을 성인이 읽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기와 이후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야기 이해력이며 이는 유아가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해 갈 때 점차 길러지는 능력이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는 유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책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책읽기를 통해 책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경험한다. 교사는 주제와 관련된 책, 백과사전 등 다양한 유형의 책,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의 책, 동시나 언어놀이 책, 음악 및 미술관련 책, 과학관련 책 등을 여러 흥미영역에 비치하여 놀이 중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거나 수시로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이 과정을 통해 책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주는 유익한 도구임을 알게 한다.

4) 쓰기

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말을 글로 나타내는 쓰기과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알며, 자신의 이름이나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보는 경험을 하고, 자신의 느낌, 생각과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을 접하고 다른 사람의 쓰기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3세	4세	5세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이름을 써 본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말과 글의 관계를 알아가기 위한 기초로 유아가 그린 그림이나 꼬적거리기 등으로 표현하고 교사가 유아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말이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상대방이 알아볼 수 없으나 자신에게만 의미 있는 지그재그선이나 동그라미 모양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주 표현한다. 교사는 이러한 표현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유아의 말을 주의 깊게 끝까지 들어 주듯이 꼬적거리는 글을 존중하며 끝까지 보고, 그 내용에 흥미를 보이도록 한다. 어떤 글자를 썼는지, 그 글자는 어떻게 읽는지 등을 묻기보다 꼬적인 내용이 무엇을 쓴 것인가에 관심을 보인다. 유아로 하여금 꼬적인 내용을 다시 읽어 달라고 하고 교사가 그 내용을 받아 써 준다면 유아는 말과 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어렵풋하게 알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는 유아의 생각이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아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들이 말과 글의 관계를 아는 것은 글자의 형태를 정확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 이외의 다른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글자를 배우기 위해 선긋기, 글자 모양을 따라 쓰기, 자모음을 외우고 반복하여 쓰기 등은 글자 형태만을 가르치는 것이고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과정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런 글자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겨야 할 시기에 철자법에 맞는 자모음 쓰기, 낱말 쓰기, 쓰기 순서에 따라 문장 쓰기 등을 강요한다면 유아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이후에 전혀 어떤 글도 스스로 쓰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생각이나 말을 끄적거리거나 글자와 비슷한 선, 모양 등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해 준다. 이때 유아가 표현한 것을 의미 있는 글로써 존중해 주고 읽어주는 성인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는 점차 말과 글의 관계를 알게 된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는 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글자인 자기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자를 접하고 다른 사람의 쓰기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끄적거리를 시작한다. 이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자기 이름 쓰기이다. 제대로 쓸 수는 없으나 끄적거리는 선이나 모양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쓰고자 하는 행위 자체를 격려한다. 처음에는 직선과 곡선이 나타나다가 조금씩 철자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며,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뀐 모습도 나타난다. 교사는 이러한 이름 철자를 그때마다 교정해 주지 말아야 한다. 유아가 자기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르게 글자를 쓰게 되지만 자주 교정해주면 성인에게 의존하거나 이름 쓰기를 싫어하게 된다. 교사는 만 3세 유아의 이름표에 사진을 함께 붙여주어 자기 이름 글자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한다.

‘자기 이름을 써 본다.’는 유아가 자신의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자 시도하는 내용이다.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말의 발음 하나와 글자 하나를 연결하되 자모음을 조합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 4세 유아에게는 어려운 과제이다. 처음에는 듣는 소리에 맞추어 자음 하나만을 쓰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다가 자음에 모음이 합하여 지고 위, 아래에 받침부터 쓰기도 하며 이름과 성을 여기저기에 따로 쓰기도 한다. 이름 쓰는 순서도 매번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글자 쓰기 과정은 자연

스럽게 발달되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사가 의도적으로 연필 잡는 법, 획 긋는 법 등을 가르치고 유아가 쓴 글자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유아의 쓰기 동기를 감소시키고 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유아 스스로 탐색해 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 4세 유아가 가장 좋아하고 친숙해 하는 자기 이름 글자를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써보는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글자 쓰기에 대한 관심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는 유아가 친숙한 자기 이름 쓰기에서 더 확장하여 주변의 친숙한 글자도 스스로 써보고자 시도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자기 이름이나 가족 이름, 친구 이름, 매일 먹는 우유 이름, 집에 가면서 보았던 간판, 홍보지 등 주변의 환경인쇄물이나 인쇄물에서 보았던 친숙한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몇 글자라도 써보고자 한다. 글자는 철자법이 맞지 않을 수 있고, ‘우유’의 ‘유’자 만을 몇 장씩이나 계속 쓸 수도 있다. 이러한 흥미는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이해하고 추후에 새로운 낱말이나 긴 문장을 쓰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만 5세 유아가 이름이나 친숙한 글자를 써보는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고, 역할놀이나 쌓기 놀이, 미술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놀이와 관련된 쓰기 경험을 갖도록 한다면 쓰기에 대한 흥미를 더 높일 수 있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글이 있음을 알고 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아직 소리인 발음과 글자인 자모음간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그림이나 꼬불꼬불한 긴 선, 여러 개의 둥근 원 등으로 나타낸 후 그 내용을 교사나 친구에게 읽어주며 전달하려고 한다. 이러한 글자 비슷한 형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이고 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비록 우리 사회에서 약속한 언어는 아니지만 그 언어를 흉내 낸 유아가 발명한 글자이다. 이러한 글자 비슷한 형태가 말 이외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유아는 이러한 시도를 한다. 글자 비슷한 형태는 추후에 점차 정확한 글자로 바뀌어 가므로 교사는 만 4세 유아가 만들어낸 글자를 의사소통의 언어로서 존중하고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도록 유아가 쓴 것을 붙여주거나 읽어주어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는 충분히 자기만의 글자로 쓰기를 즐긴 유아에게 조금씩 글자들이 나타나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만 5세가 되어도 긴 문장이나 새로운 낱말을 우리 사회의 글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맞춤법에 맞는 글자로 글을 쓰는 것을 강조하면 유아는 여러 다른 태도를 습득하지 못한다. 즉 창의적인 내용을 쓰기, 글을 자주 쓰려고 시도하는 동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의 반응에 관심을 두기, 자신이나 친구의 쓴 글의 내용을 존중하기 등은 유아가 중요하게 경험해야 할 내용이다. 비록 철자법도 틀리고 글자가 아닌 선이나 모양으로 내용을 쓰지만 그 쓴 내용을 존중해 주는 환경에서 유아는 이러한 쓰기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유아가 쓴 것을 수정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유아가 쓰기 자체에 관심을 보이며 쓰기를 시도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면 유아는 쓰기가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 쓰기 도구 사용하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는 만 4세부터 다양한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보고 점차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고 쓰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만 3세의 경우 아직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로, 쓰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발달적으로 무리가 되는 내용이므로 4세부터 이를 지도하도록 한다.

3세	4세	5세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는 유아가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도구와 친숙해 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여러 가지 쓰기 도구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장소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쓰기 도구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외에서는 유아가 주변에서 주운 나무 막대로 흙이나 모래에 쓸 수 있고, 색분필이나 물을 묻힌 붓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쓸 수 있다. 오래된 타자기를 사용할 수 있고, 비닐위에 매직으로 쓸 수도 있다. 연필과 종이만을 사용하기보다 쓰기에 관심을 갖도록 언어영역 외의 흥미영역에서도 유아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쓰기 도구를 마련해 주어 이를 사용해 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는 유아가 여러 가지 쓰기 도구의 특성을 알고 이를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의 쓰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또래와의 활동에서 쓰기도구 사용법을 경험하게 된다. 쓰기도구 사용은 언어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쓰기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은 유아의 소근육 발달이나 눈과 손의 협응 능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Ⅲ | 사회관계

01

성격

사회관계 영역은 유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가족, 또래와 함께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 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기초능력과 인성을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유아가 나를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기초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유아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자신의 가족배경과 구성원에 대하여 편견 없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유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여,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유아기부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고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관계 영역은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의 다섯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처음 내용 범주는 유아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 범주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세 내용 범주에서는 유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편견 없이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을 유아가 가족, 친구와 교사, 지역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로 점차 관심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동심원적 접근 방식으로 전개해 나간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 질서 등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 예절과 소양을 기르기 위해 힘쓴다. 유아가 원만한 대인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아를 지닌 유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강조점을 둔다.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본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유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율적인 능력을 기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유아기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또래와 이웃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서 장차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업을 가진다.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유아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강조점을 둔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는 가족, 또래, 이웃과 협력하며 타인들과 더불어 지내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갖춘 유능한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1)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율성을 기른다.

유아기는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하는 자율성을 갖추어가는 시기이다. 유아는 자신의 외모, 가족 관계와 가족 구조의 특성,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여건 등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유아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천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유아가 자신에 대하여 알아보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고 계획하여 실천해 보는 데 강조점을 둔다.

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유아기는 감정이 분화하며 표현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자,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하여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조망 능력과 공감 능력의 기초를 키워나가는 시기이다. 유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 수준에서 자신과 타인의 다양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절하여 표현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이 나와 다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도 생활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정서표현과 조절은 이후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협력한다.

유아기는 유아가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시기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데 적절한 시기이다. 유아기부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부모와 조부모, 형제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상에 다양한 가족이 있음을 유아가 이해하고 인정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가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과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을 기쁘게 하는 일을 찾아보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위로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4)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돕고, 예의·규칙 등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킨다.

유아기는 가족 외에 친구와 교사, 이웃 등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기에 적합하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전인 발달이 고루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는 사회적 존재인 유아가 친구와 협력하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교사나 이웃과도 협력하며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고, 정직, 배려, 예의, 공공규칙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공유하는 가치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우리 동네,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진다.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유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경험하는 기회가 과거보다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또한 유아기는 다름에 대한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이다. 유아가 내가 사는 동네,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가 자신이 속한 동네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토대로 편견 없이 다양한 나라, 인종, 문화에 관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03

내용 구성

사회관계 영역의 내용 범주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사회에 관심 갖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가. 내용 범주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유아가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가족 및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는 유아가 자신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하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로써,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하여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는 유아가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가족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하고, 가족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는 내용을 다룬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임을 알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며 배려할 줄 알고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본 예절과 기초 질서 및 공공 규칙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회에 관심 갖기’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과 전통문화에 대해 알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이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을 다룬다.

내용 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 나의 감정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가족과 협력하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사회에 관심 갖기	•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나를 알고 존중하기

가)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에서는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보며,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가져보도록 한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알고 존중하며, 나아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다.

3세	4세	5세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나의 몸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루 동안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 등을 이야기해 보거나, 나의 이름, 나이, 성별이나 모습 등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해 봄으로써 현재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나의 몸의 신체적 특징들을 살펴보고, 몸 이외에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다. 자신이 아기 때 찍은 사진, 입었던 옷이나 신발, 사용했던 물건이나 장난감 등을 현재의 것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몸과 생각이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모습 및 다양한 욕구나 필요, 그에 따른 행동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 이외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기초를 기르기 위

한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생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김새나 성별, 성격, 생각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특징이 나와 다를음을 서서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본다.’는 나와 다른 사람의 같은 점을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나이, 성별, 사는 곳, 가족 형태, 생일, 좋아하는 음식이나 놀이, 잘하는 것 등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은 누구나 각기 생김새나 성격, 성별, 사고방식, 문화 등에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고유한 존재임을 알고 그 차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자신의 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남·녀의 신체적 차이나 양성 평등에 대한 활동 및 사회적, 문화적 관점을 찾아보고 존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경험을 하게 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자신이 소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아 자신이 한 일이나 활동 결과물을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유아의 장점과 능력을 다른 사람 앞에서 격려해주어 유아에게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성취와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자신의 외모, 성, 행동, 정서, 능력, 흥미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이는 주로 친밀한 관계 형성과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만 4, 5세 유아 스스로가 자신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친구관계의 체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나의 일 스스로 하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직접 경험해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보고 계획하여 실행해 보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는 식습관, 청결, 휴식, 배변, 의생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등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음식을 제자리에 앉아서 먹기, 식사 후 뒷정리하기, 손 씻기, 필요할 때에 휴식하기, 스스로 옷 입고 벗기 등 만 3세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는 유아가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생활화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만 4세 유아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놓은 행동이나 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함으로써 유아가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는 가정과 기관에서 다양한 과제를 시도하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관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유아 자신의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겨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는 유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해 보고 선택함으로써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하고 싶은 놀이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놀이해 보거나, 극 놀이에서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는 유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주도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만 4, 5세 유아 자신이 시작한 일을 스스로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하고 싶은 놀이를 계획해서 놀이한 후 평가해 볼 수 있게 하거나 일과 속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도록 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2)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알아가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세	4세	5세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안다.’는 유아가 자신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자신에게 슬프고, 기쁘고, 화나는 등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알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유아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감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면서도 슬프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등 복합적인 감정이 있음을 아는 내용을 다룬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는 유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고 이를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만 4, 5세 유아가 자신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정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쁠 때는 기쁜 표현을 하고 슬플 때는 억누르거나 참기보다 슬픔을 표현하며 화가 날 때도 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나아가 슬플 때에 항상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눈



물이 날 수 있고, 놀라거나 걱정이 되어도 화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복합적인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도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는 등 다양한 감정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는 다른 사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아는 내용이며 이러한 감정이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타인이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아는 것 뿐 아니라 슬플 때만이 아니라 화가 날 때도 우는 등 표현되는 감정과 실제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는 만 5세 유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상대방의 정서 이해와 공감, 그리고 표현에 관한 경험이 포함된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느껴 보고 이해하며, 자신이 이해한 타인의 감정을 표현해 봄으로써 공감을 경험해 보는 내용도 포함된다.

나) 나의 감정 조절하기

‘나의 감정 조절하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보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경험에 대하여 다룬다.

3세	4세	5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조절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가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으로 조절하



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봄으로써 자기 조절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는 유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 및 문화에서 수용되는 방식을 알고 자신의 감정 및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만 5세 유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올바른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때와 상황에 맞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조절 및 활용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나간다.

3)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에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의미를 알며 화목하게 지내는 내용을 다룬다.

3세	4세	5세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다.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는 가족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존중에 관한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고마움과 소중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때,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 등을 알고 이를 표현해 보는 경험을 통해 가족이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껴보도록 한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는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임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가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가족 구성원의 다



양한 역할과 관계 등을 만 5세 유아 수준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가족에게 고마움과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험하도록 한다. 가족 간에도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가족관계도 증진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유아가 가정에서 부모 및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냄으로써 가정 밖에서 다른 사람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조부모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며 애정과 신뢰를 쌓아가는지 알아보는 내용이 포함된다. 가족과 함께 경험한 일,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협력한 일, 형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아봄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감정에 대하여 공감하며 긍정적인 갈등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유아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경험도 포함한다. 긍정적인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유아의 성격과 인성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나)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과 협력하기’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각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가족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을 다룬다.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며 가족 간에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세	4세	5세
가족 구성원을 알아본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

‘가족 구성원을 알아본다.’는 우리 가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가족이란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 그리고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에 포함시키고자 하

는 구성원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의 가족 구성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며 더 나아가 자신의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는 우리 집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각자의 가족마다 가족 구성원이 다르듯이 가족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형제, 자매의 역할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와 밖에서도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 이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도 알아보며 같은 반 친구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역할을 비교해 보고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 구성원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발달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갖도록 한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는 모든 가족이 부모-자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있음을 알고 자기의 가족과 다른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같은 반 친구의 가족 중에는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친구 등 다양한 가족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 친구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경우에는 할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 해 주고 있을 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른 가족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아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반편견적인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수준에서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실천한다.’는 가족 구성원에게



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와의 관계와 역할 등 다양한 관계와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족과 협력하여 잘 지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가족 공동체의 의미와 목표를 이해하고 가족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실천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가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친구들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는 가족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유아 자신도 가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유아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내용을 다룬다. 만 5세 유아가 자신도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받았던 도움들을 기억하며 도움을 받을 때의 기분이나 마음에 대하여도 알아본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집안 일로 힘들어 하실 때, 몸이 아플 때, 형제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등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고, 유아수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후 실천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유아는 가족과 서로 협력하여 지내는 가운데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가치와 바람직한 행동의 표본을 알아가도록 한다.

4)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는 유아가 친구와 함께 놀이하고 협동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세	4세	5세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는 유아가 친구를 알고, 친구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친밀감을 표현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협력하여 함께 놀이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는 친구와 서로 협동하며 놀이하는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협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집단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의 흥미와 재주는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한다. 더불어 협동하는 속에서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즐겁게 협조하고 친구들의 요청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참여와 협력의 자세도 가지도록 한다.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나와 친구와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친구의 의견도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함을 알게 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친구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배려, 양보, 타협 등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친구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고, 갈등과 다툼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서로 대화하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노력을 통하여 화해하고 상호 협동하는 관계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한다.

나)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지내기’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또한 교사나 주변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세	4세	5세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 받고, 서로 협력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유아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을 아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혼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으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고 이럴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받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성취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는 우리 사회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가족, 이웃, 친척, 친구, 교사 등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에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반대로 내가 곤란한 상황에서 친구, 교사, 이웃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중요한 덕목임을 알게 한다. 또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먼저 다가가 묻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도록 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또래 외에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의 기쁨을 느끼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지원, 친밀감 같은 긍정적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가 친구 및 교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친근감을 갖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며,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고 어울릴 수 있는 친밀감 등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과 생각, 행동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함을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약속과 공공규칙을 지켜야함을 알고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3세	4세	5세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3세	4세	5세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정직하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정직과 솔직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게 하고, 정직한 행동 양식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됨을 알도록 한다. 또한 거짓말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정직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거짓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소유물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자신의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을 구분하여 함부로 만지거나 갖지 않아야 함을 알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내 소유물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소유물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타인에게 미리 허락을 구한 후에 만지거나 빌려올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돌려주어야 함도 알도록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신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이 나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다른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할 줄 아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통하여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지만 오히려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과 공감 능력을 키워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려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일이다. 만 5세 유아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보살필 때



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 그리고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알게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배려는 도움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규칙을 지키거나 예절을 지키는 등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예의 바른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친절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임을 알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역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만 4, 5세 유아가 이름이 불리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친절히 응대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며, 상황에 맞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등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예의 바른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도록 한다.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는 약속과 규칙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모두가 정한 공공의 규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아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약속은 부모 형제와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교사와의 약속 등이 있음을 알고 약속을 지키면 좋은 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며 약속의 중요성을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장소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이해하며, 화장실 사용하기, 놀이기구 및 엘리베이터 타기, 교통 신호 지키기, 쓰레기 버리기 등의 장소나 상황별로 공공규칙을 알아보도록 한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덕적 규범이며 사회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기본임을 알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 질서, 규칙 지키기를 실천하고 습관화하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과 질서, 공공규칙 지키는 행동을 만 4, 5세 유아가 선택하고 통제하는 법을 습득하도록 하여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특히, 유아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며, 친구 또는 부모,



교사와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유아가 도덕적 가치 규범의 중요성을 내재화하도록 한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는 유아기부터 자연과 자원의 가치 및 소중함을 알고 보호하는 태도를 기르며,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에게 주변의 자연 속에서 자연물을 직접 접하여 그 상태와 변화를 느끼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여러 가지 자연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이러한 자연과 자원들은 소중히 가꾸어져야 하고 아껴서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또한, 자연과 자원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도록 하며, 이를 아끼고 가꾸며 보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5) 사회에 관심 갖기

가)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통해 우리 동네의 이름과 우리 동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과 동네 이웃의 다양한 직업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웃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들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돈의 필요성과 쓰임새 등을 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세	4세	5세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새에 대해 안다.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는 유아가 가정을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오며가며 항상 접하게 되는 가까운 주변 지역이 동네임을 아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 3세 유아에게 우리 동네는 나와 가족 이외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동네에 있는 가게, 길에서 본 사람들과 모습들 등에 관심을 갖고, 동네의 이름 등을 알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는 우리 동네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역사, 자랑거리, 지역축제 등을 포함한 동네의 특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 4, 5세 유아가 자신이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의 환경 등을 통해 동네가 갖고 있는 지리, 자연적 특성을 알고, 공공기관이나 생활관련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생활관련 공간의 기능과 역할,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자랑거리, 최근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우리 동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므로 가족들과 공공기관이나 생활관련 공간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얻은 경험을 역할놀이로 표현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써 예절 바른 행동과 말, 친절을 표현하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도록 하는 것도 함께 다룬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우리 동네의 공공기관과 생활관련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공공규칙 및 예절을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을 다룬다. 또한 유아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유아가 만나는 대상 또는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언행을 할 수 있도록 예의범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다양한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업과 우리 생활과의 중요한 연관성을 생각해봄으로써 직업의 소중함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직업을 갖는 이유, 직업의 종류와 하는 일 등에 대한 경험을 놀이해 봄으로써 직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장래 희망을 생각해 보는 내용을 함께 다룬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는 물건을 사고 팔 때에는 돈이 필요하며 물건에 해당하는 가치의 돈을 주어야 함을 아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구입해 본 경험 속에서 필요한 물건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갖고 싶다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인식하는 내용도 함께 다룬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는 유아가 돈의 쓰임에 대해 물건을 사는 것에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돈의 기능, 경제활동의 기초적 정보 및 지식을 갖춰 바람직한 돈의 쓰임을 이해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에게 돈의 사용법을 알게 하고 바람직한 소비습관과 절약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역사, 전통, 문화, 풍습 및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세	4세	5세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혹은 우리나라를 여러 상황에서 쉽고 편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상징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 등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 꽃, 노래, 한글, 옷차림, 문양 등 다양한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알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라이름,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한복 등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변에 활용된 모습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상황에서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지식 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한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알고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들과 관계된 역사적 사실이나 유래 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예절을 지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즐겨하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옛이야기, 춤과 노래, 그림 등과 같은 전통 문화, 생활풍습 등에 친숙함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놀이, 음악, 그림, 춤, 문학에 친숙함을 가지도록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다룬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하여 과거의 역사와 다양한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알고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만 5세 유아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에서부터 발전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쌓고 유지해 온 전통, 역사, 문화를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형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는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풍습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발명품, 위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경험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가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 역사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우리나라

라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나라 문화가 갖고 있는 독창성과 장점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현대사회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내용으로 다룬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 자신도 장래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여 미래에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아가 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문화에 관심가지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존중하며 관심을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세	4세	5세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세계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다양한 상징물 등이 있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가 여행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해 알게 된 나라들에 대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지도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우리나라 외에도 각기 다른 자연환경에서 다른 문화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이 있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서로 부족한 것은 돕고 나누며, 함께 사는 지



구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세계 여러 나라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서 의·식·주 문화와 미술, 음악, 건축물 등에 대한 고유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생활 주변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 속에서 음식, 주거, 옷차림, 가족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등을 알아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기초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인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다양성을 수용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에게 각 나라는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할 소명이 있음을 깨닫는 내용을 포함한다.

IV 예술경험

01

성격

예술경험 영역은 유아가 친근한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리, 음악, 움직임과 춤, 모양과 색 등의 미술 요소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래와 교사, 부모,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작가가 표현한 예술작품을 가까이 접하면서, 이를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감상하기 위한 영역이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고, 이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예술적 존재이다. 예술경험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매개로 다른 사람과 소통도 가능하게 하므로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들에게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창의적 표현을 즐기고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술적 표현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찾아보며 느낌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경험에 중점을 둔다.

이 영역은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아기의 예술경험은 이 세 가지 내용이 구분되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 예술 감상은 서로 연계되고 순환되면서 유아의 예술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별개의 독립된 활동으로 다루기보다 수시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예술 매체와의 친숙한 경험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활동이 순환되고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경험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개인의 자유로운 감성과 표현이 존중되는 영역인 만큼 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유아가 가진 느낌을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허용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을 접하면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즐기고 추구할 수 있는 소양과 더불어 아름다움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유아기는 주변에 관심을 갖고 감각과 신체를 이용하여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또한 만 3, 4, 5세 유아들은 자연을 비롯한 주변 사물이 지닌 다양한 예술적 요소를 인식하고 친숙한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시기의 유아는 느낌, 생각, 상상한 것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 이로 인해 미적 감각 및 심미적 태도가 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유아기 동안 미적 감각과 심미적 태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 풍요로움과 행복감을 얻는 기본적인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따라서 예술경험 영역에서는 유아가 자연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둔다.

1)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다.

예술적 요소에 대한 탐색은 유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소리, 음악, 움직임, 춤, 극놀이, 조형물 등에서 아름다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유아에게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술적 요소들과 관련지어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탐색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자연과 주변 환경에 있는 아름다움을 개별적으로 발견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견에 귀 기울이고, 그 느낌을 교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은 유아의 미적 감각과 심미감을 높여주고 창의적인 표현과 감상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아름다움 찾아보

기에서는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창의적인 예술표현은 유아가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표현 과정에서 유아는 언어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시도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나름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도록 하는 것은 유아의 창의적 표현력과 흥미감을 증진시킨다. 특히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 다양한 예술표현은 서로 연계하여 이를 통합할 경우 창의적인 표현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적 표현하기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과정과 즐기는 것에 목표를 둔다. 또한 유아들은 예술 표현의 과정 뿐 아니라 예술 표현의 결과물인 작품을 통해서도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예술 작품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목표에 포함한다.

3) 자연과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른다.

감상이란 유아가 자연물과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술 작품을 보고, 듣고, 즐기며, 소중히 여김으로써 풍부한 감성을 기르며, 전통 예술에 친숙해지고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기 동안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다양하게 감상하는 경험은 감성, 미적 감각, 표현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유아가 일생에 걸쳐 접하게 될 예술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상을 통해 유아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표현방법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



유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었을 때 유아는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자연과 다양한 예술작품을 자연스럽게 감상함으로써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예술적 작품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03

내용 구성

예술경험 영역의 내용범주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가. 내용 범주

예술경험 영역의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의 세 가지 범주는 아름다움과 예술이라는 큰 체제 속에서 통합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는 자연 및 예술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음악, 움직임 및 춤, 미술의 요소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유아가 주변 환경 속에 잠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술적 표현하기’는 다양한 예술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잠재된 창의성과 표현력이 발휘되므로, 풍부한 재료 및 도구와 함께 편안하고 허용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술 감상하기’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감상하는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변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나 사물, 예술 작품을 비롯하여 인류 보편의 감성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작품들에도 관심을 가져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예술적 표현하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 극놀이로 표현하기 •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 전통예술 감상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아름다움 찾아보기

가)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는 유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와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소리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를 느끼고, 요소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며 다양한 소리와 악기 등으로 이를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를 탐색하는 유아의 능력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아름다움을 소리와 악기 등으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3세	4세	5세
다양한 소리, 음악의 썸여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음악의 썸여림,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

‘다양한 소리, 음악의 썸여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자연의 소리, 목소리, 음악 등에서 음악적 요소인 강함과 약함의 썸여림, 빠름과 느림의 빠르기, 규칙적인 패턴인 리듬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자연과 주변 환경



의 소리와 음악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소리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이런 아름다움이 음악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각하고 반응할 수 있다. 유아는 빗소리에서 소리의 강함과 약함을 느낄 수 있고, 물 흐르는 소리에서는 소리의 빠르기와 느리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새 소리에서는 규칙적인 패턴의 리듬에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소리와 음악을 들으면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빠르고 느린 속도감, 리듬의 반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가 음악적 요소를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소리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음악의 썸여림,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는 유아가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소리와 음악적 요소인 강함과 약함의 썸여림, 빠름과 느림의 빠르기, 규칙적인 패턴인 리듬,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소리들이 가지는 고유한 음색 등을 자신의 신체나 악기를 포함한 사물들을 통해 자유롭게 실험하고 조합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만 3, 4세 유아와 같이 다양한 소리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손뼉을 마주치는 힘에 따라 소리의 약함과 강함을, 그리고 걷거나 뛰는 등의 속도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통해 빠르기를 탐색할 수 있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특정한 신체부위와 악기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패턴의 소리를 만들고, 각각의 신체 부위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고유한 소리의 특성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함으로써 리듬과 음색을 탐색하게 된다.

나)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는 유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의 움직임 혹은 자연과 주변 사물의 여러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움직임과 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움직임과 춤 요소들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며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유아의 다양한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 능력은 유아가 움직임과 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며, 아름다움을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된다.

3세	4세	5세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의 움직임 혹은 자연과 주변 사물의 여러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모양, 움직임과 춤의 강함과 약함의 힘, 움직임과 춤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빠름의 빠르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은 직선, 곡선, 꼬임, 대칭, 비대칭, 균형 등의 요소로 이루어지며, 만 3, 4세 유아는 군인들의 행진, 나비의 날갯짓 모습 등을 관찰하면서 움직임과 춤의 모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유아는 큰 바위와 같은 무거운 사물을 밀거나 당기는 강한 힘과 발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을 때의 약한 힘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움직임과 춤의 요소인 힘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유아는 탭 댄서의 발의 빠른 움직임과 살풀이를 추는 무용수의 느린 움직임에서 움직임과 춤의 요소인 빠르기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움직임과 춤의 요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물의 실제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회와 이러한 움직임이 담긴 다양한 영상매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발레, 한국 무용, 다른 나라의 민속춤 등이 담긴 영상매체를 제시하여 춤과 움직임 요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는 유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의 움직임 혹은 자연과 주변 사물의 여러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모양, 강함과 약함의 힘, 느낌과 빠름의 빠르기, 연속적, 비연속적 흐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만 3, 4세 유아와 같이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지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움직임과 춤의 연속적, 비연속적 흐름 등을 탐색할 수 있다. 유아는 부드러운 동작이 연속되는 왈츠와 사람들이 팔을 잡고 파도 타는 움직임에서 연속성을, 그리고 동작이 끊어지며 경련하는 밸리 댄스에서 비연속성을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다양한 움직임과 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가 움직임과 춤의 요소의 특징과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신체로 움직여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미술적 요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미술적 요



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고 그 차이 등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의 미술적 요소를 탐색하는 유아의 능력은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를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된다.

3세	4세	5세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의 다양하고 고유한 색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사물의 다양한 윤곽에서 모양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연과 사물의 독특한 재질에서 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꽃과 열매와 같은 자연에서 다양하고 고유한 색을 찾을 수 있고, 나뭇잎과 같은 자연물에서 다양한 모양을 발견하고, 또한 자연과 사물의 다양한 재질에서 부드러운, 까끌까끌한, 울퉁불퉁한, 뾰족뾰족한, 미끌미끌한 등의 다양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 시각과 촉각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가 관심을 가지게 된 자연과 사물의 미술적 요소를 다양한 미술품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는 유아가 자연과 사물에서 경험했던 미술적 요소인 색, 모양, 질감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조합하며 상하, 좌우, 앞뒤, 여백 등의 공간이 주는 느낌을 탐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자연과 사물에서 색의 다양함을 발견할 수 있고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나뭇잎과 같은 자연과 사물에서 다양한 모양을 발견하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나무껍질의 울퉁불퉁함, 가지의 미끌미끌함, 실크 스카프의 부드러움과 같이 자연과 사물의 재질이 만들어내는 질감을 구별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사물의 위치에서 상하, 좌우, 앞뒤 공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동양화에서 여백 등의 공간이 주는 느낌을 발견하고 여백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탐색할 수 있다.

2) 예술적 표현하기

가) 음악으로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는 유아가 노래와 전래동요를 부르고, 리듬악기를 연주하며,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보는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리고 노래하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긴다. 다양한 음악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표현하는 즐거움을 촉진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갖게 하며 유아의 음악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세	4세	5세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 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는 유아가 단순한 절과 음정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것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며, 단순하게 반복되는 리듬, 가락,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를 자발적으로 부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에게는 이야기가 있는 노래, 자신과 관련된 노래, 친숙한 일상생활 경험을 다루고 있는 노래, 반복되는 리듬과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 손유희가 있는 노래 등이 적합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노래를 흥겹게 불러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하루일과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이전 시기에 즐겨 불렀던 간단한 노래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의 노래, 다른 나라의 동요를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봄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제할 수 있고, 리듬과 음의 고저를 사용하



며 음역이 확장된다. 또한 한 가지 노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 5세 유아는 음역과 리듬, 음의 고저를 더욱 정확히 사용하여 보다 안정감 있는 음정으로 노래 전체를 부를 수 있고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이나 느낌에 대해 선율과 리듬을 변화시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만 5세 유아에게는 노랫말이나 곡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며 부를 수 있도록 노래에 나오는 단어나 이야기에 대해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과정도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는 유아가 우리 고유의 음악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래동요는 유아의 생활모습과 감정, 생활주변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가락과 리듬이 단순하고 그 길이가 짧아 유아가 쉽게 배우고 함께 부르기에 편안하며, 반복적인 언어나 리듬은 유아에게 즐거움을 준다. 만 3세 유아에게는 반복적이며 쉬운 전래동요를 듣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 활동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 4세 유아 또한 간단한 전래동요를 듣고 즐겨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어 익숙해지도록 하며 주의집중 활동, 바깥놀이, 게임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 5세 유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보는 경험을 통해 전래동요의 분위기와 흐름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으므로, 전래동요와 관련된 전래놀이 경험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 본다.’는 유아가 음악의 기본요소인 리듬을 직접 경험하며 리듬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소근육이 점차 발달함으로써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고, 주변의 사물을 이용하여 리듬을 표현하며 리듬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리듬악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감각을 경험해 보는 활동은 이후에 악기연주 능력 발달의 기초가 된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 보는 경험 이전에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소리나 리듬을 만들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 두드리기, 발 구르기, 입으로 소리 만들기, 고개 끄덕이기 등을 통해 유아는 리듬을 맞추는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유아에게 적합한 리듬악기로는 탬버린, 트라이앵글, 우드블록, 캐스터네츠, 리듬 막대, 장구, 북, 소

고, 징, 팽과리 등과 같이 고유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리듬이나 소리 탐색이 쉬우며, 간단한 리듬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좋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는 이전 시기에 표현했던 간단한 리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개념을 리듬악기로 연주해 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눈과 손의 협응력 발달로 리듬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음의 셈여림, 빠르기, 등의 차이에 관심을 갖고 연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다양한 종류의 리듬악기로 소리에 관심을 갖고, 다른 악기소리와 구별하며, 리듬을 만들거나 리듬악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만 5세 유아는 악기를 다루는 조절력이 향상되어 대부분의 리듬악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리듬패턴과 박자에 따라 리듬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리듬악기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다루어볼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여 악기들을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하며, 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유아가 만드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함께 소리를 연합하여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필요하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는 유아가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만들어 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놀이 중에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말놀이를 하거나 즉흥적으로 짧고 반복적인 리듬이 있는 흥얼거림을 한다. 이러한 말놀이나 짧고 단순한 리듬이 반복되는 흥얼거림에는 이미 패턴에 맞추어진 노랫말이 있기 때문에 노래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만 4세 유아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 수 있고 이미 잘 알려진 친숙한 곡을 따라 노랫말을 만들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아가 만든 노래의 특성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을 모아 새로운 노래로 구성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즐거워한다.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리듬이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리듬이나 노래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거나 그 노래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는 유아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내용이나 느낌에 대해 단순한 선율과 리듬을 만들어 보거나 노래로 표현해 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동일한 노래를 다른 속도와 다른 음높이로 부를 수 있는 데 이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흥미나 경험을 통해 즉흥적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창의적인 표현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에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상황 등에 대해 간단한 리듬을 만들어 노래로 표현해 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노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유아가 등원하면서 간단한 노래형식으로 인사하기, 다양한 선이나 색의 대비가 뚜렷한 그림을 보고 멜로디로 표현하기, 동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영상자료를 보며 움직임에 따라 리듬 만들기 등의 활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나)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는 유아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조합하고 응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보다 아름답고 창의적인 움직임이나 춤으로 표현해 보는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춤 활동은 유아에게 풍부한 상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동작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하며,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3세	4세	5세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즐긴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유아의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숙한 생물, 사물, 상황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생활주변의 동물, 식물, 사람, 놀잇감, 탈 것, 도구 등의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상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며 이를 표현하고자 자신의 신체로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즐긴다. 그러나 단순한 움직임으로 표현하거나 또래들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아가 표현할 대상에 대해 충분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실물자료 또는 모형, 다양한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움직임을 비롯하여 감정이나 상황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동작

어휘를 포함하고 있는 동요, 동시, 동화, 손유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하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즐긴다.’는 유아가 생활 주변의 생물, 사물, 상황 등에서 발견한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유아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거나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찾아내도록 한다. 또한 짝과 함께 신체 부분을 연결하여 큰 구름이 되어 움직여보거나 코끼리의 움직임과 생쥐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표현해 보는 등의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만 5세 유아에게도 움직임 그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하므로 각 유아의 표현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모든 유아가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유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움직임과 춤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움직여보거나 춤을 추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대상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단순한 움직임으로 떠오르는 대로 상상적인 표현을 한다. 만 5세 유아는 사실적인 표현과 더불어 이에 대한 느낌, 생각, 상황, 분위기, 상상한 것까지도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움직임과 춤은 유아가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하여 ‘~처럼 되어보는’ 경험을 이끈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표현을 촉진한다. 만 3, 4세 유아는 자유롭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여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면, 만 5세 유아는 유아 자신의 능력을 탐색하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움직임과 춤의 요소를 다양한 동작과 적절히 조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요소와 동작이 자신이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지 알게 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는 유아가 공간속에서의 도구의 움직임이나 신체와의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도구를 직접 다루어 봄으로써 도구에 친밀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특히, 활동에 소극적인



유아일 경우, 도구의 움직임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게 하여 활동 참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다. 또한 도구 활용과 관련된 공간(가까이-멀리, 앞-뒤, 위-아래 등)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사전경험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도구에는 다양한 색깔의 스카프, 리듬막대, 리본테이프, 다양한 색과 모양의 풍선,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공, 스펀지 등이 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는 유아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대·소근육의 협응력이 정교하게 발달하므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어 창의적인 표현을 촉진하며 유아의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전개되도록 돕는다. 창의적인 움직임을 돕는 다양한 도구로는 지팡이, 모자, 탄력밴드, 다양한 공, 고무줄, 풍선, 리본, 홀라후프, 한삼, 줄 등이 적합하다. 또한 유아가 도구를 활용하여 마음껏 움직이려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전에 안전규칙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유아들이 활동하면서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술활동은 재료와 도구를 가지고 유아가 알고 있는 것, 본 것,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표현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하고 미적 감각 및 창의성을 발달시킨다.

3세	4세	5세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는 유아가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관심을 갖고 감각과 신체를 이용하여 보고 만지며 느끼는 다양한 미술 경험을 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미술표현을 위한 기초 능력 뿐 아니라 자신감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직선, 곡선, 지그재그 등 다양한 선들과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본 도형을 그릴 수 있으나, 발달 특성상 친숙한 대상이더라도 상징을 통한 미술표현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만 3세 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감각과 신체를 통한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미술 현의 기초 능력이 되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기와 색칠하기도 나무껍질, 돌, 조개껍질,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종이 등의 여러 종류의 평면에, 그리고 색칠하는 미술 활동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질감을 느끼고 비교할 수 있는 콜라주와 점토 활동도 만 3세 유아에게 적합한 미술활동이다. 특히 만 3세의 미술활동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별적 표현을 격려하는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는 유아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가 되면 특정 대상을 상징화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반면, 만 5세가 되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미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그리기가 유아의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기도 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발현되기 시작한다. 만 4, 5세의 유아는 평면과 입체 미술활동 모두를 즐길 뿐 아니라, 그리기, 색칠하기, 만들기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창의적인 미술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미술표현에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한다. 따라서 만 4, 5세의 유아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미술활동 과정과 결과물인 작품도 균형 있게 중요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만 4, 5세의 유아는 알고 있는 것과 본 것 그리고 느낀 것 등을 바탕으로 미술로 표현한다. 따라서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의 감각과 신체를 통한 활동 뿐 아니라, 상상하기, 자신의 느낌 명료화하기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미술 표현의 원천이 되는 유아의 생각과 지각 그리고 느낌을 풍부하게 해 주어야 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는 유아가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과 느낌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이를 나누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또래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동은 할 수 있으나, 집단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의사교환과 협상을 하며 공동으로 미술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만 4세는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따른 작품의 완성보다는 협동적인 미술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가 또래들과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미술표현이 교사 혹은 또래들에게 인정되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 4세 유아가 적극적으로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미술활동을 한 다음, 이어서 또래들과의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유아에게 자신의 미술 작품과 또래의 미술 작품을 가지고 공동으로 꾸미고 만드는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는 유아가 또래들과 협동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서로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미적 감각과 취향을 나누면서 공동 미술표현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만 4세 보다 자기통제력과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협동적인 미술활동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교환하고 협상하며 공동 미술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가는 과정과 결과물인 작품을 보며 즐길 수 있다. 만 5세 유아는 협동적인 미술활동 과정에서 자신에게 또래가 제안한 미적 요소들과 표현 방법 등을 살펴보는 경험은 심미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다각도에서 창의적 미술표현을 해 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미술표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도 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유아가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모양에 따라 가위로 자르기와 색칠하기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미술은 창의적 표현과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고 탐색하는 활동이 핵심이 되지만 만 3세의 경우는 창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관심을 갖도

록 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만 3세 유아에게는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술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 유아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레용, 붓, 물감, 마커, 점토 등의 다양한 재료와 도구 사용을 통해 소근육을 발달시켜 미술표현의 기초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유아가 미술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료와 도구들을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만 3세보다 소근육과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미술표현이 가능하다. 미술활동에서 창의성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 것인지, 특정 도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탐색하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다양한 종류의 미술 재료와 도구를 비치해 주어야 하며, 유아가 이러한 재료와 도구를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생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미술 활동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유아의 창의적 표현을 도와주어야 한다.

라) 극놀이로 표현하기

‘극놀이로 표현하기’는 유아가 언어, 신체 움직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역할극, 인형극, 동극, 노래극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느낌, 이야기를 극화로 상징화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극놀이는 유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정을 발산하도록 하여 자아와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망하는 능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발달시킨다.

3세	4세	5세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한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극놀이를 통해 상징 또는 이미지로 표현하고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들을 모방하여 간단한 극놀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만 3세 유아의 극놀이는 지속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극화를 위한 의사소통보다는 혼잣말을 하는 경향이 높다. 아직 또래들과 역할을 맡고 협동하는 사회적 극놀이를 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아의 요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하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생활 경험과 관련된 주제에 적합한 역할 소품 및 환경을 구성하여 역동적인 극놀이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교사의 극놀이 중재는 유아의 극화 표현능력과 협동적인 극놀이 발현에 기초를 마련하는 매개가 된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는 일상생활의 경험 뿐 아니라 간단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극놀이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내용이다. 만 4세가 되면 극놀이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극화를 위해 사건과 사물을 ‘~인 척하는’ 가상 전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 전환을 위한 대체 사물을 단어로 묘사할 수도 있다. 이 시기의 유아는 맡은 역할 수행을 위해 또래들과 의사소통은 할 수 있으나 이야기의 단순한 시간상의 흐름만을 이해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를 구성하여 극놀이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경험 관련 주제에 따른 극놀이 환경 구성과 더불어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화를 읽어주고 이를 극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역동적인 극놀이 환경 구성을 통해 유아의 극화 표현능력을 증진시키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는 유아가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극놀이로 표현하는 경험을 즐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사물을 가상 전환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 4세보다 의사소통능력도 뛰어나고 극놀이 지속시간도 길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새로운 역할을 창출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바람, 기대 등을 표현하면서 극놀이를 즐긴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극놀이 주제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제공해 주고, 현장학습, 또는 새로운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여 극놀이로의 표현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아의 흥미나 주제에 따라 위인전이나 역사 관련 그림동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근거로 극놀이도 계획할 수 있으며, 놀이 전개를 위해 개방적인 질문과 역할 소품 등을 제공하여 극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는 유아가 극놀이 주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래들과 함께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계획하고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해 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극놀이에 필요한 공간과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놀이를 전개할 수 있다. 만 4세 유아도 협동적인 극놀이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발현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또래와 함께하는 협동적 극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만 5세가 되면 2~3명 이상의 소집단 유아들과 함께하는 협동적인 극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긴다. 극놀이에 필요한 소품으로 블록이나 역할 소품, 악기나 미술 작품과 옷, 모자, 구두 등 다양한 의상 등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극놀이 과정에도 주제에 적합한 역할 소품을 새로 소개하여 협동을 통한 극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에게 역할 시범을 보일 수도 있고 역할을 맡아 함께 극놀이에 참여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마)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통합적으로 표현하기’는 유아가 참여하는 다양한 표현 활동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의 경험을 조직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더욱 풍부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유아는 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창의적 표현 과정을 즐기게 된다.

3세	4세	5세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는 각각의 표현활동을 통합된 전체로서 경험해 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각각의 예술 표현활동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만 4, 5세 유아는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의 각 예술 영역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아름답고 세련된 표현을 하게 된다. 또한 모든 예술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된다. 즉 음악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미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아의 흥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으며, 움직임과 춤을 즐기지 않는 유아가 미술작품을 감상한 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신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각 예술을 통합한 표현 활동에서는 각각의 예술 표현활동이 관련된 맥락 안에서 의미 있게 통합되고 연계되어 표현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는 유아가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표현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신체 조절력이 발달되면서 신체적인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다. 또한 청각적인 자극에 민감하여 음악이나 리듬을 들으면 즉흥적으로 반응하며 단순한 내용의 극놀이도 즐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는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로 하여금 표현과정을 즐기게 하려면 자유롭고 허용적인 분위기, 즉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으며 유아 스스로 시간, 자료, 기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놀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유아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표현해 보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다양성, 민감성, 독창성 등의 창의성과 관련된 행동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창의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전제로 하여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의 통합적 표현 활동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므로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탐색하고

실험하며 즐기는 것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기회가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각 예술 활동의 통합적 표현 경험이 반복될 때 유아는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발견하고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야 한다.

3) 예술 감상하기

가)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는 유아가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기는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느끼고 각자의 표현을 존중하며 예술 감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취향이 사람들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성장과정에서 접하는 경험에 따라 개인이 일생동안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영역과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예술경험은 향후 개인의 인생전반에 걸쳐 예술적 취향에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세	4세	5세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본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본다.’는 유아가 다양한 예술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주변에 있는 자연을 접하는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의 요소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만 3세 유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음악, 미술, 움직임과 춤, 극놀이 등과 같은 예술작품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을 접할 때 경험하는 예술적 요소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주로 친숙한 환경에서 겪은 경험이 중요하므로 자신과 또래의 작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예술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예술적 환경을 접하게 함으로써 만 3세 유아에게 예술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아기에 경험하는 예술적 환경은 향후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



는 역량 개발에 기초가 된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는 유아가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면서 능동적으로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예술적 작품을 듣고 보면서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또래들의 춤, 그림, 동극 등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뿐 아니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음악회, 노래극, 춤 공연, 인형극이나 연극공연 등에 가도록 하거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시기의 유아는 아직 예술적 취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나 춤, 미술작품, 극놀이 등을 감상하며, 듣거나 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풍부한 감성을 기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는 유아가 예술작품이나 예술적 표현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술분야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독창적인 표현이 발휘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적인 정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추구하는 미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배경이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나 정서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만 3, 4, 5세 유아들도 각각 자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자유롭게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명한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전통예술 감상하기

‘전통예술 감상하기’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기는 우리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며 익숙해지는 데 중요한 시기이므로, 유아가 전통음악이나 춤, 미술작품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세	4세	5세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은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치 않으므로 이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이후 삶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게 해 준다. 따라서 만 3, 4세 유아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통예술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상들이 입었던 의상의 역사적 유래와 특성 그리고 사용하였던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이야기하고 보여주면서 전통예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춤과 미술작품 그리고 음악을 보여주거나 들려줌으로써 전통예술에 관심과 친숙함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는 유아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친근하게 느끼고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는 자아 정체감과 민족적 자긍심 형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예술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이나 고궁, 공연무대 등을 방문하여 전통음악과 춤, 미술작품 등을 관람하도록 하거나,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과 관련된 그림, 사진자료 등을 보고 느낀 것을 토의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의식주와 관련된 옛 물건이나 작품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친숙해지도록 한다. 이외에 음률 영역에 전통악기를 배치하거나, 역할놀이 영역에 전통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릇, 전통의상 등을 배치하고 소꿉놀이를 통해 전통예술에 친숙해지도록 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음악이나 전통춤 공연을 감상하면서 장단이나 움직임에 따라하도록 하거나, 도자기나 조각보 등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여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색과 패턴, 질감, 리듬, 움직임 등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V | 자연탐구

01

성격

자연탐구 영역은 유아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상이나 문제해결을 통해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영역이다.

유아기는 무엇이든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이 왕성한 시기이다. 의문을 가지고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탐구활동은 유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유아는 일상 속의 의문과 경험에서 많은 수학적 · 과학적 탐구의 기회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수학적 · 과학적 기초 지식과 탐구과정을 익히게 된다. 수학적 ·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은 유아의 논리적 · 합리적 사고력을 육성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세 가지 내용 범주로 구성된다. 수학적 · 과학적 탐구하기는 ‘무엇을 탐구하는가’ 즉, 탐구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면, 탐구하는 태도는 ‘어떻게 탐구하는가’ 즉, 탐구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탐구의 내용과 탐구의 과정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다는 점에 유념하여 지도해야 한다.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다양한 실물자료와 자연체험의 기회를 유아에게 풍부하게 제공하여 교사의 개입 없이 이뤄지는 자발적 학습, 우연히 발생하는 학습 기회를 포착하여 가르치는 비형식적 학습, 그리고 교사가 계획하고 의도한 형식적 학습이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유아가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탐구를 즐기도록 한다. 유아가 일상생활 경험에서 구성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추론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 과학적 기초능력을 의미 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한다. 탐구하고 발견해 가는 과정에서 유아가 자신



의 생각을 말, 글, 그림, 그래프, 표, 구체물 등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한다.

02

목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유아가 주변의 사물이나 자연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또한 유아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논리적 ·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에 대해 탐구하면서 기초적인 수학적 · 과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

유아기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며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이다. 유아기의 이러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은 사고력 발달의 토대가 된다. 또한 과학과 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학적 · 과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유아기부터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연탐구 영역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 ·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탐구하는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유아의 관심을 확장시켜 주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탐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가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도록 한다. 유아에게 수학적 ·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과정 속에서 자신의 지적 활동을 통해 수학적 ·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탐구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호기심을 지속하고 확장하여 관심을 둔 사항에 대해 꼼꼼이 생각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 탐구과정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며, 유아는 궁금한 것에 대한 탐구를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유아기부터 주변세계를 주의 깊게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지적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궁금한 점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문을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얻어내는 탐구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또한 관찰, 분류, 측정, 예측, 추론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수학적 능력은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기초가 되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다. 수학적 능력은 직관이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통찰로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수학적 관계나 형식, 원리의 이해로 발달한다. 유아기는 이러한 수학적 능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이므로 유아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아가 놀이, 게임, 생활 속의 문제 해결과 같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수량관계,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수집과 정리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구성하고 논리적·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유아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물이나 자연물, 생명체 및 자연현상과 접하면서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고자 한다. 특히 과학과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유아의 생활 속에 과학과 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관심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유아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세계를 알아가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 동안 주변 세계의 다양한 물체와 물질을 탐색하고, 생명체와 자연환경과 자연현상을 알아보며,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범주는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내용 및 세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가. 내용 범주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유아가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탐구과정을 즐겁게 경험하면서 탐구기술을 활용하고 수학적 · 과학적 탐구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한다.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성향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써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기술 활용하기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유아가 탐구과정을 즐겁게 경험하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추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수학적 탐구하기’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수학적 사고와 추론에 의해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알아보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과학적 탐구하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사물과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과 과학의 의미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를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간단한 기계와 도구 활용하기를 내용에 포함하여 유아기부터 과학기술의 편리성과 그 역기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내용 범주	내 용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 탐구과정 즐기기 • 탐구기술 활용하기

내용 범주	내 용
수학적 탐구하기	•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 기초적인 측정하기 • 규칙성 이해하기 •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과학적 탐구하기	•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 자연현상 알아보기 •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나. 내용 및 세부 내용

1)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가)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는 유아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성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경험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단순히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궁금한 것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유아가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하여 호기심을 나타내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은 탐구하는 태도 형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3세	4세	5세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한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변의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새롭고 신기하게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가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이며, 이는 탐구활동의 시작이자 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성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한 것을 찾아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의 호기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관심 있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과 알고 싶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경청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환경을 구성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흥미로운 탐색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한다.’는 유아가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주변의 또래나 교사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이 스스로 탐색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면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조사하고, 관련된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호기심을 유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나) 탐구과정 즐기기

‘탐구과정 즐기기’는 유아가 호기심을 느끼거나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하고 탐구하여 발견해가는 과정을 즐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또래 및 교사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유아는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관찰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점차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된다.

3세	4세	5세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참여하고 즐긴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는 유아가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거나 의문점을 가질 때 탐색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 내용이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탐색하고

흥미를 갖는 것은 탐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만 3세는 수학적 · 과학적 지식을 아는 것보다 유아 스스로 궁금한 점을 알아가는 과정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유아가 제기하는 질문과 생각에 관심을 갖고 반응해 준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유아가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관찰, 분류, 예측, 실험 등과 같은 탐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유아로 하여금 흥미로운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하거나 여러 사물의 속성에 대해 서로 같은 점이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 만 4세 유아가 궁금한 점을 알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하거나 관찰하고 실험해 보는 탐구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탐구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참여하고 즐긴다.’는 유아가 탐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고 이를 적용해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또래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관찰하고, 비교하고, 실험하는 기본적인 탐구과정에서 더 나아가 또래 또는 교사와 함께 의사소통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유아로 하여금 탐구과정을 더욱 즐기도록 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는 탐구과정에서 유아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경험하고, 교사나 또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또래와 토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협동성, 개방성 등과 같은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러므로 탐구과정에서 또래 유아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다) 탐구기술 활용하기

‘탐구기술 활용하기’는 유아로 하여금 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을 지각하고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처음에는



탐색, 관찰, 비교 등의 기본적인 탐구기술을 활용하여 궁금한 것을 알아간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탐구 기술 뿐만 아니라 예측, 실험, 의사소통 등의 좀 더 복잡한 탐구기술을 활용해 보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3세	4세	5세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본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해 본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본다.’는 유아가 우리주변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탐색하거나 관찰하는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해 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궁금한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탐색이나 관찰 등 기초적인 탐구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돕는 환경을 구성해주고, 시각 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격려한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해 본다.’는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색, 관찰, 비교, 분류, 측정, 예견 및 추론, 실험 등 여러 가지 탐구기술을 활용해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관심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탐구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다양한 탐구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비교하고, 분류하고, 예측하고, 실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전략을 사용하여 탐구과정을 지원해준다.

2) 수학적 탐구하기

가)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수를 경험하면서 수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고, 기초적인 수와 연산의 개념을 형성하

는 내용이다. 유아는 생활 속에서 수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물체 세기를 통해 수량을 인식한다. 또한 구체물을 사용하여 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며,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하면서 수와 연산에 대한 기초개념을 형성한다.

3세	4세	5세
생활 속에서 수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생활 속에서 수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거나 주변에서 수를 세는 것을 보면서 수에 흥미를 보이게 된다. 이 시기에는 주로 ‘몇 개가 있는가?’라는 수량을 알기 위해 수를 세는 것에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수를 세는 것을 보거나 따라하면서 ‘일, 이, 삼, 사, 오’와 같이 수의 이름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말로 수세기나 물체의 수를 세어보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는 수가 물체를 헤아려 수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이름 대신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보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수가 물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수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등과 같이 순서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것을 안다. 또한 수가 전화번호나 버스번호와 같이 이름처럼 사용되는 것도 알게 된다. 만 4, 5세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세고, 놀이 순서를 정하며,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등 번호를 알아보는 등의 경험을 통해 수가 생활 속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는 유아가 사물을 탐색할 때 어느 것의 양이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눈으로 봐서 수량의 차이가 큰 경우 즉, 물체가 1개 있는 것과 여러 개 있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눈으로 봐서 쉽게 수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수량 비교의 경험과 ‘많다, 적다’와 같은 수량을 지칭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유아는 수량의 많고 적음을 알게 된다.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는 하나의 사물의 양을 기준으로 이것과 비교해서 같은지, 더 많은지, 더 적은지의 관계를 아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10개 이하의 물체를 가지고 수량을 비교하여 수량이 ‘같다’, ‘더 많다’, 또는 ‘더 적다’와 같은 수들 간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유아는 수량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일대일 대응이나 수세기를 하면서 수량을 비교하게 된다. 수세기를 하면서 뒤로 갈수록 수량이 많아짐을 이해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같다’, ‘더 많다’, ‘더 적다’로 수량을 비교하게 된다.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는 전체가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도 있고, 부분과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수세기를 통해 ‘몇 개’라는 수량적 의미를 알게 되며 이에 기초하여 점차 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볼링 게임에서 10개의 볼링 핀 중 쓰러진 개수와 남아 있는 개수를 세면서 볼링 핀 10개가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유아는 수들 간의 관계를 알게 되고 수 개념이 확장되어 특정한 수를 하위 수들의 조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다.’는 수세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유아가 다섯 개 정도의 물체를 세고 그 수량을 아는 내용이다. ‘일, 이, 삼, 사, 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말로 수를 셀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아는 것은 아니다. 기계적으로 수 이름을 암송만 하던 유아가 물체 한 개에 수 이름을 하나씩 대응하여 수세기를 하고 ‘몇 개인지’ 해당되는 수량을 아는 것이 수 개념 발달의 기본이다. 만 3세경의 유아는 수량을 알기 위해 수세기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므로 적은 수량의 물체를 직접 세어보면서 몇 개인지의 수량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는 열 개 가량의 물체를 정확하게 세고 그 수량을 아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1에서 10까지 수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으며 열 개 가량의 물체를 세어보고 그 수량을 알아볼 수 있다. 유아가 물체를 셀 때 손가락으로 한 개씩 지적하면서 세거나 이미 헤아린 물체를 다른 쪽으로 놓아서 아직 세지 않은 물체와 분리하기, 또는 물체의 그림을 셀 때는 하나씩 지워가는 표시를 하며 헤아리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물체를 세도록 안내한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는 1에서 9까지의 한자리 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10 이상의 큰 수인 스무 개 가량의 물체를 세고 그 수량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1에서 10까지의 수세기를 하면서 수 이름과 해당되는 수량을 대응하는 것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10까지의 숫자 읽기와 쓰기도 가능하다. 또한 유아는 1에서 9까지의 수세기에서 사용된 수 이름의 순서가 10 이상의 수에도 ‘십일, 십이, 십삼...’과 같이 반복하여 사용되는 규칙이 있음을 점차 알게 된다. 이런 능력이 발달되어 유아는 점차 스무 개까지의 물체를 직접 세어보며 수량을 알 수 있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수량을 더하거나 빼는 경험을 통해서 수량의 변화를 이해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한 자리수의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물체를 합하면 처음보다 수량이 많아지고, 물체를 덜어내면 처음보다 수량이 적어진다는 결과를 경험한다. 이런 경험은 이후 덧셈과 뺄셈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만 5세 유아에게 구체물의 조작과 연관 짓지 않고 숫자와 기호를 사용한 수식만을 통해 추상적으로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는 것은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유아가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경험을 통해 더하고 감해지는 수량의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는 공간 안에서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주변 물체들의 형태를 변별하면서 도형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발달시키는 내용이다. 유아는 자신이나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보는 위치에



따른 공간적 차이를 알아간다. 또한 시각적·촉각적 탐색을 통해 기본 평면 도형 및 입체도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도형을 나누거나 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할 수 있다.

3세	4세	5세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알아본다.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알아본다.’는 공간 내에서 물체를 감각적으로 탐색하면서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물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내용이다. 공간 내에서 위치와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신을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만 3세 유아는 ‘나의 앞/뒤/옆/위/아래’와 같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물체의 위치를 말하고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는 공간 내에서 물체들 간의 위치, 방향, 거리를 인식하고 이를 언어, 구체물, 그림, 지도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어 보는 내용이다. 유아는 물체의 위치와 방향을 ‘책상 위’, ‘책꽂이 뒤’, ‘창문 앞쪽으로’ ‘현관 쪽으로’와 같이 공간적 어휘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교실이나 놀이터 같이 친숙한 장소의 공간 구성을 블록과 같은 구체물로 나타내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 만 4, 5세경에는 점차적으로 친숙한 장소까지의 경로를 인식하여 간단한 지도를 만들면서 옆, 앞, 뒤, 멀리, 가까이 등과 같은 공간관계를 알게 된다.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는 한 물체의 모양은 바라보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각 방향에서의 모양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물체를 정면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위치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해 유아가 공간적 추론을 하도록 한다.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물건을 탐색하면서 시각적인 외양을 토대로 물체의 모양에 흥미를 갖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일상생활이나 놀이 속에서 각 물체의 모양이 다르게 생김을 알고 모양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시기 유아는 감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체를 탐색하면서 물체의 모양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는 유아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 공, 둥근 기둥, 상자 모양의 기본 평면 및 입체도형들의 생김새를 구별하고 각 도형의 특성을 알게 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기본 입체도형을 탐색하고 ‘굴러가는 것과 굴러가지 않는 것’, ‘쌓을 수 있는 것과 쌓을 수 없는 것’과 같은 특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유아는 전체적인 시각적 외양을 토대로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 대한 자신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기본 도형을 인식하지만 점차적으로 뾰족한 점(꼭짓점)이 있는지, 구부러진 선인지, 닫힌 상태인지와 같은 기본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게 된다.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기본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위나 옆에서 바라본 입체 도형의 모양을 비교하거나, 입체 도형을 굴리고 세워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면서 도형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된다. 또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도형의 성질에 주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다른 크기와 방향으로 제시되거나 비전형적인 모양으로 제시되어도 각 도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크기나 모양 또는 제시되는 방향이 달라도 세모는 3개의 변과 3개의 꼭짓점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는 유아가 기본 도형을 나누고 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탐색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여러 개의 다른 도형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도형이 여러 개의 다른 도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도형을 옮기고, 뒤집고, 돌리는 경험을 수반하므로 도형의 이동과 대칭도 경험할 수 있고, 기본 도형을 구체적으로 조작하고 변화시켜보는 경험을 반복함



으로써 머릿속에서 변화할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공간시각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기초적인 측정하기’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측정 가능한 속성에 따라 사물이나 상황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보며,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측정은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 짓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사물이 지닌 속성의 크기를 기준량(단위)를 정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측정하기를 통해 유아는 스스로 탐색한 환경에 순서와 질서를 세워간다.

3세	4세	5세
두 물체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등을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본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두 물체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 본다.’는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길이나 크기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물체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두 물체의 길이나 크기를 비교하면서 길이와 크기 속성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하게 되며,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고 ‘길다/짧다, 크다/작다’와 같은 비교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등을 비교해 본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뿐만 아니라 무게를 기준으로 두 물체를 비교해 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길이나 크기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물체를 비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게를 통한 비교도 가능하다. 유아는 손이나 양팔 저울 위에 두 개의 물체를 얹어 놓고 비교하면서 ‘무겁다/가볍다’와 같은 비교 어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아는 두 물체를 직접 들어보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더 작은 물체이지만 손으로 들어보았을 때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본다.’

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 물체의 측정 가능한 속성을 인식하고 이들 속성을 기준으로 물체들을 비교하여 순서지어 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물체를 길이, 크기, 무게 뿐만 아니라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용량 즉, 들이를 기준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 유아는 물체를 길이, 크기, 무게, 들이를 기준으로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비교를 하여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장 길다/짧다’, ‘~보다 더 길다/더 짧다’, ‘가장 크다/작다’, ‘~보다 더 크다/더 작다’등과 같은 비교어휘를 사용하여 비교 및 순서 짓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는 유아가 측정을 위해 자신의 신체나 연필, 블록 같은 생활 주변의 측정 단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처음에는 손 뽀미나 발 크기 등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측정하다가 점차 신체 단위가 사람마다 다를음을 느끼게 되면서 보다 더 객관적인 임의 측정 단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 경험을 해 본다. 유아는 연필이나 끈을 이용하여 길이를, 색종이를 이용하여 면적을, 컵을 이용하여 들이를 측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측정할 대상에 따라 적절한 임의 측정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라) 규칙성 이해하기

‘규칙성 이해하기’는 유아가 생활 주변에서 사물이나 사건의 양상이 일정한 순서로 반복 배열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타일이나 벽지의 무늬, 포장지의 그림 등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발견하고, 밤과 낮, 요일, 사계절, 유치원/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같은 변화에서도 규칙성을 인식한다. 유아는 규칙성을 이해함으로써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숨은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여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3세	4세	5세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아본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한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익숙한 상황이나 사물의 양상이 일정하게 반복 배열됨을 신기하게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관찰과 모방 행동에 의해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배우고 즐긴다. 노래 속에서 반복되는 리듬과 몸 움직임, 동물 소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규칙을 따라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생활주변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상황이나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며, $\bigcirc \times$ 또는 $\bigcirc \bigcirc \times \times$ 유형과 같은 단순한 규칙성을 인식하고 말로 설명하거나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가 주변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성에 주목하고 규칙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규칙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규칙성을 단순하게 인식하고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규칙의 중간에 빠진 것을 추론하여 찾아보거나 단순한 규칙을 한 가지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전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igcirc \times$ 라는 요소가 반복되는 ‘앞고-서고-앞고-서는’ 운동적 규칙을 ‘큰 소리-작은 소리-큰 소리-작은 소리’의 청각적 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한다.’는 유아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제시하면 규칙성을 이해하고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bigcirc \times$ 또는 $\bigcirc \bigcirc \times \times$ 유형과 같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제시하면 이를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강-노랑-빨강-노랑-빨강-노랑’의 규칙으로 레고블록을 제시하면 유아는 똑같이 ‘빨강-노랑-빨강-노랑-빨강-노랑’의 규칙으로 레고블록을 놓을 수 있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는 유아가 규칙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주변에서 친숙하게 반복되는 규칙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스스로 단순한 유형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제시해 준 규칙이 없어도 유

아 스스로 ‘빨간색 큰 구슬-노란색 작은 구슬’을 반복하여 구슬 목걸이를 만들거나 생일축하 카드에 일정한 규칙으로 스티커를 붙여 장식을 할 수 있다.

마)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는 일상생활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결과를 나타내고, 해석하는 여러 과정을 포함한다. 이는 유아 수준의 기초 통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확률과 통계’와 연계된다. 유아는 탐구하려는 문제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결과에 기초하여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게 된다.

3세	4세	5세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나 자료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견 조사하기, 책 찾아보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탐구하려는 문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초가 된다.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다.’는 유아가 여러 가지 물체들의 특징과 속성을 잘 살펴보고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지만 친숙한 물체들 중에서 같은 것 끼리 짝짓기는 가능하다. 같은 것 끼리 짝짓기는 사물의 같고 다름을 살펴보고 동일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으로 관계성에 기초한 분류 활동의 시작점이 된다. 따라서 만 3세 유아가 같은 것 끼리 짝지어 보는 경험은 이후에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는 유아가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탐색하고 공통된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자료를 모양, 크기, 색깔, 재질 등과 같이 공통된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어미와 새끼, 손과 장갑 등과 같이 관련이 있거나 어울리는 것끼리 모을 수 있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같은 모양 블록 모으기, 같은 색깔 물건 찾기와 같이 공통된 한 가지 속성에 따라 물체를 분류해 보는 경험은 기초적인 분류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는 유아가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수집된 자료들을 모양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색깔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수집한 자료의 분류와 재분류는 어떤 기준과 속성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왜 자료를 모았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게 되며, 여러 가지 자료의 분류와 정리 기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을 한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의 분류를 토대로 그 결과를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수집한 자료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가 보여주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유아는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가장 적은’, ‘~보다 많은’, ‘~보다 적은’ 등의 수량적 관계를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프의 작성과 해석 과정을 통해 유아는 처음에 탐구하고자 했던 문제가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과학적 탐구하기

가)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는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친숙한 물체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며, 점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와 물질을 변화시켜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유아가 주변의 물체와 물질에 관심을 갖고 오감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다루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체를 움직여보고 물질을 변화시켜 기본적 속성을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세	4세	5세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친숙한 물체나 물질의 크기, 모양, 색, 냄새, 소리, 질감과 같은 기본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탐색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물체와 물질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즐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물체나 물질을 제공해주어 특성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예를 들면, 크기와 색, 질감이 다른 다양한 공을 제공해주면 공을 탐색하면서 공의 특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친숙한 물체나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체나 물질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물체나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체나 물질의 크기, 색, 모양, 질감 등과 같은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자석이나 구슬과 같은 물체나 밀가루 반죽과 같은 물질 등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물체나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관심 영역을 주변의 다양한 물체와 물질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만 4세 시기에 탐색한 물체와 물질의 범



위를 더 넓혀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적 특성을 알아가게 된다. 유아는 주변에서 새롭게 접한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며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을 만들 때 밀가루의 기본적인 특성을 아는 것과 더불어 물을 넣어 밀가루 반죽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의 끈적거리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특성도 알아볼 수 있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는 유아가 자신에게 친숙해진 물체나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봄으로써 물체와 물질의 기본 속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관심을 가진 물체나 물질을 발견하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탐구하고 실험한다. 물체나 물질을 움직여보거나 잘라보고 또는 다른 것과 섞거나 분리해 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봄으로써 물체와 물질의 크기, 모양, 색, 질감 등의 속성에서 변화되는 특성은 무엇이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속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나)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는 유아가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생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환경을 알아봄으로써 생명체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녹색환경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에 있는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출생과 성장뿐만 아니라 궁금한 동식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가 인간과 동식물, 자연환경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기 좋은 녹색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도 다룬다.

3세	4세	5세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자신의 몸에 대해 흥미를 가지면서 출생과 성장과정에 궁금증을 갖고 알아보는 것을 돕는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자신의 몸을 탐색하면서 신체의 이름과 위치,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점차적으로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특히 자신이나 친구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므로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출생과 성장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는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출생하여 성장해 가는지를 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미래를 예측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현재 자신의 신체 조건을 출생 시와 비교하면서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변화의 개념을 알아간다. 그러므로 출생 시의 몸무게와 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현재 자신의 신체 조건과 비교해 보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음식과도 관련지어보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신체조건 및 성장 과정과도 비교해볼 수 있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유아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것을 돕는 내용이다. 만 3세 유아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만져보거나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유아가 동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직접 먹여주기, 자세히 관찰하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과정을 다룬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을 직접 길러보거나 관찰하면서 동식물의 이름과 생김새, 습성, 사는 곳 등의 특성을 알아가도록 돕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동식물의 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탐색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동·식물원의 견학, 동식물 전문가와 이야기나누기, 인터넷 검색 등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유아들이 궁금했던 특성과 정보를 알아보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기르면서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하는 과정을 알



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며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교사가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관심 있는 동식물을 주변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길러보며,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내용을 다룬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유아가 다양한 생명체의 종류가 있음을 알고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3, 4, 5세 유아는 생명체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친근감과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생명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넘어서서 함께 공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가 동식물의 관점을 잘 표현해낸 그림책을 읽거나 동식물의 입장이 되어 보는 극놀이를 하면서 생명체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다룰 수 있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절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모든 생명체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아가 생명체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은 생물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동시에 생명체에게 해로운 오염된 환경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만 4세 유아가 생물체가 살기 좋은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변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는 유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환경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인간이 생물체에게 이롭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생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한 녹색환경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더러운 폐수를 관찰하고 이야기나누기, 물 아껴쓰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법 등을 통해 녹색환경 만들기 내용을 다룰 수 있다.

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자연현상 알아보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 과정을 통하여 ‘변화와 규칙성’이라는 자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3세	4세	5세
돌, 물, 흙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 주변에 있는 돌이나 물, 흙과 같은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 탐색하는 내용이다. 유아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돌, 물, 흙 등의 여러 가지 자연물이 있으며, 유아는 본성적으로 자연물을 탐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만 3세 유아가 주변에 있는 돌, 물, 흙과 같은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물과 자연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고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돌, 물, 흙 등 자연물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는 유아가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돌, 물, 흙과 같은 자연물의 모양, 냄새, 소리, 질감 등의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하고, 계절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물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자연물을 직접 관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는 주변의 여러 장소에 있는 물과 흙, 돌을 비교해 보면서 자연물이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는 유아가 낮과 밤, 계절이 순환적으로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경험하고 일련의 규칙성을 알아보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에게 낮과 밤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경험하는 현상이므로 낮과 밤에 사람들이 하는 일, 낮과 밤의 하늘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변화의 순서를 확인하고, 변화 속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만약 지속적인 탐색과정에서 유아가 낮과 밤, 계절이 변화하는 원인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인터넷이나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날씨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내용이다. 날씨는 매일 변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여 만 3세 유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감각을 통해 직접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가 맑은 날, 바람이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눈 오는 날의 날씨에 맞는 옷과 용품을 선택한 후 바깥으로 나가서 직접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날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날씨 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내용이다. 만 4세 유아는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매일의 날씨 변화와 계절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후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다. 계절에 따른 기온의 변화,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 습하고 더우며 비가 많은 여름, 춥고 건조하며 눈이 내리는 겨울과 같이 계절별로 달라지는 기후에 대해 유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날씨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매일의 날씨, 계절의 변화에 따른 기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연현상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날씨와 계절별 기후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황사, 가뭄과 홍수, 태풍, 한파, 폭설과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한 최근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현상에도 관심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라)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는 유아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발전으로 인한 편리성 뿐 아니라 역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다. 유아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도구와 기계에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는 내용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종류와 기능을 알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다룬다. 또한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도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세	4세	5세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갖는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도구나 기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요리도구나 청소기, 세탁기, 컴퓨터와 같은 기계들이 사용되는 것을 쉽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구나 기계는 만 3세 유아가 직접 사용하여 경험한 것은 아니므로 유아가 매일 다루는 지퍼나 단추, 가위와 같은 아주 간단한 도구에 대한 관심부터 이끌어내고, 점차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한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는 유아가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을 통해 도구와 기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내용이다. 만 4, 5세 유아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기계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므로 요리활동에서 간단한 요리도구를 다루어보거나 미용실 놀이를 통해 미용가위나 빗 같은 도구를 사용해 볼 수 있다. 또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접 사진을 찍어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궁금한 내용을 조사하는 등 생활 속에서 필요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유아는 매우 간단한 도구나 놀잇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도구를 수동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도구 개발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갖는다.**’는 유아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도구와 기계를 직접 활용하면서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가지게 하게 내용이다. 만 3, 4세 유아는 도구와 기계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위를 사용하여 물건을 쉽게 자르는 경험이나 녹음기로 소리를 녹음하고 필요할 때마다 재생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높은 층으로 쉽게 이동하는 경험 등을 통해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도구와 기계가 계속 등장하게 됨으로 유아가 새롭게 개발되는 도구나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장단점을 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 5세 유아는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로봇과 같은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작동과정을 탐색하고 활용해 보면서 편리함을 인식할 수 있다. 동시에 도구와 기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컴퓨터는 적절히 사용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잘못 사용하거나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몸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다룬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부록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비교표

1. 신체운동·건강
2. 의사소통
3. 사회관계
4. 예술경험
5. 자연탐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 비교표

1. 신체운동 · 건강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신체 인식 하기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미세한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적 차이를 경험한다.	감각적 차이를 구분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구분한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감각기관을 인식하고, 활용해 본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여러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용한다.	감각으로 대상이나 사물의 특성과 차이를 인식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각 부분의 명칭 을 알고,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특성 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하기	신체 조절 하기	신체균형을 유지해본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에서 신체균형을 유지한다.	신체균형을 유지하면 서 다양한 자세를 취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경험 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 여 움직인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움직인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신체 각 부분의 움직 임을 조절해 본다.	신체 각 부분을 협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신체 각 부분을 협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한다.	공간, 힘, 시간 등의 움직임 요소를 활용하여 운동한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눈과 손을 협응하여 소근육을 조절해 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 하기	신체 조절 하기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조작운동을 한다.
	기본 운동하기	걷기, 달리기 등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걷기, 달리기, 뛰기 등 다양한 이동운동을 한다.
		제자리에서 몸을 움직여 본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제자리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제자리에서 다양한 운동을 한다.
신체 활동에 참여 하기	자발적 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기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신체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신체 활동에 참여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이해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운동능력의 차이를 존중한다.
	바깥에서 신체 활동하기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바깥에서 신체 활동을 한다.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을 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손과 이를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손과 몸과 이를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주변을 깨끗이 한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기른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습관을 갖는다.
	바른 식생활 하기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당량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알아본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바른 태도로 식사한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식사예절을 지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소중히 여긴다. 식사예절을 지킨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건강하게 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 하기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하루 일과에 즐겁게 참여한다.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진다.	바른 배변습관을 가진다.
	질병 예방하기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의 위험을 알고 주의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을 알고 실천한다.
		날씨에 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날씨와 상황에 알맞게 옷을 입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안전한 놀이장소를 안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한다.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TV, 인터넷, 통신기기 등의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 지키기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교통규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다닌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 을 요청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학대, 성폭력,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안다.



2. 의사소통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바른 태도로 듣기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 며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친숙한 낱말을 발음해 본다.	친숙한 낱말을 정확하 게 발음해 본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말한다.
		새로운 낱말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말한다.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문장으로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말한다.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해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적절한 단어와 문장으로 말한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말하기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를 지어 말한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차례를 지켜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때와 장소,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 본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진다.	읽어 주는 글의 내용 에 관심을 가지고 읽 어 본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 를 찾아 읽어 본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책에 흥미를 가진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을 글로 나타내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안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이름을 써 본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이름과 주변의 친숙한 글자를 써 본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쓰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 본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한다.

3. 사회관계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에 대해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나의 일 스스로 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고 해 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표현하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음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공감한다.
	나의 감정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본다.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조절한다.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낸다.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
	가족과 협력하기	가족 구성원을 알아본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가족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가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 보고 실천한다.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함을 알고 실천한다.	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한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친구와 함께 놀이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친구와 협동하며 놀이한다.
		나와 친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안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공동체에 서 화목 하게 지내기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한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교사 및 주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낸다.
	사회적 가치를 알고 지키기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옳고 그름을 이해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다른 사람과 한 약속 이나 공공규칙을 지킨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자연과 자원을 아끼는 습관을 기른다.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의 이름을 안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동네에 대해 알아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사회에 관심 갖기	지역 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 동네 사람들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 는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
	우리 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예절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와 풍습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알아보고 존중한다.

4. 예술경험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아름다운 찾아보기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	다양한 소리, 음악의 셈여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음악의 셈여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 으로 음악의 셈여림,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	다양한 소리, 악기 등 으로 강약, 속도, 리듬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 요소 탐색하기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등에 관심을 갖는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움직임과 춤의 모양, 힘, 세기, 빠르기, 흐름 등을 탐색한다.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 등을 탐색한다.	자연과 사물에서 색, 질감, 모양, 공간 등을 탐색한다.
예술적 표현하기	음악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른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노래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전래동요를 즐겨 부른다.
		리듬악기로 간단한 리듬을 표현해 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리듬악기를 연주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간단한 리듬과 노래를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리듬과 노래 등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본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하기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 하게 표현하며 즐긴다.	신체를 이용하여 주변의 움직임을 다양 하게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움직인다.
	미술 활동 으로 표현하기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해 본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활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한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예술적 표현하기	미술 활동 으로 표현하기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 게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 게 사용한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다양하 게 사용한다.
	극놀이로 표현하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이나 간단한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경험이나 이야기를 극놀이로 표현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소품, 배경, 의상 등을 사용하여 협동적으로 극놀이를 한다.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등을 통합하여 표현한다.	음악, 움직임, 미술, 극놀이를 통합하여 표현한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표현과정을 즐긴다.
예술 감상하기	다양한 예술 감상 하기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본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다른 문화의 예술작품에 관심을 가진다.
	전통예술 감상하기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5. 자연탐구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 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 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는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 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한다.	주변 사물과 자연세계 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한다.
	탐구과정 즐기기				궁금한 점을 알기 위해 비교하기, 예측 하기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한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과정에 흥미를 갖는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탐구과정에 참여하고 즐긴다.	
	탐구기술 활용하기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해 본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기술을 활용해 본다.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생활 속에서 수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구체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구체물 수량에서 '같다', '더 많다', '더 적다'의 관계를 안다.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아본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다섯 개 가량의 구체 물을 세어보고 수량에 관심을 갖는다.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수학적 탐구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나를 중심으로 앞, 뒤, 옆, 위, 아래를 알아본다.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	
		물체의 모양에 관심을 갖는다.	기본 도형의 특성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다양한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두 물체의 길이, 크기를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등을 비교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시간 등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들이, 무게 등을 재 본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주변에서 반복 되는 규칙성을 알아 본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 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 해 본다.	생활주변에서 반복되 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 해 본다.
			반복되는 규칙성을 인식하고 모방한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같은 것 끼리 짝을 짓는다.	한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 로 나타내 본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 로 나타내 본다.

내용 범주	내용	3, 4세 누리과정		5세 누리과정 (부분 개정)	5세 누리과정 (11. 9. 5)
		3세	4세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 보기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친숙한 물체와 물질의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물질의 기본 특성을 알아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물체와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 본다.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	나와 다른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본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 는 마음을 갖는다.	생명체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체가 살아 가기에 좋은 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과 녹색환경에 대해 알아본다.	
	자연현상 알아보기	돌, 물, 흙 등 자연물에 관심을 갖는다.	돌, 물, 흙 등 자연물 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돌, 물, 흙 등 자연물 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돌, 물, 흙 등 자연물 의 특성과 변화를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와 규칙성을 알아본다.
		날씨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날씨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에 대해 관심 을 갖는다.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 하기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생활 속에서 간단한 도구와 기계를 활용한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 에 관심을 갖는다.	도구와 기계의 편리함 에 관심을 갖는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갖고 장단점을 안다.	변화하는 새로운 도구와 기계에 관심을 가진다.
					편리한 물건이 때로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집필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집필 총괄		이 영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총 론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선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각 론	신체운동 · 건강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이회현	SK행복어린이집 원장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박정선	명지전문대부설유치원장
	의사소통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박영란	동아유치원 원장
		염지숙	건국대학교 교수
		박정원	푸르니 일산어린이집 원장
	사회관계	최혜영	창원대학교 교수
		박명자	창녕유치원 원장
		김영옥	전남대학교 교수
		김정연	선릉 삼성어린이집 원장
	예술경험	지성애	중앙대학교 교수
		이원선	(재)한국보육진흥원 팀장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재원	우정유치원 원장
	자연탐구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인혜	현대열린어린이집 원장
		신혜원	서경대학교 교수
		안경숙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장
연구협력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장윤정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신옥수	보건복지부 서기관
		박성원	보건복지부 사무관

※ 본 해설서는 「5세 누리과정 해설서」 및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집필함.

【붙임 1】 「5세 누리과정 해설서」 집필진

구분	성명	소속/직위
총론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신체운동·건강	이미정	여주대학교 교수
	정미라	경원대학교 교수
	문원자	부산 연산유치원 원장
	오경숙	면일유치원 원장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의사소통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연승	경성대학교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성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혜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사회관계	문미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영옥	전남대학교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소정	경희대학교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예술경험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지성애	중앙대학교 교수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염명순	인천 꿈나라유치원 원장
	한찬희	서경대학교 강사
자연탐구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나종혜	한남대학교 교수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연구협력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오경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유정민	보건복지부 사무관
	주 철	보건복지부 사무관

【붙임 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집필진

구분	성명	소속
1부		
Ⅰ. 교사용 지침서의 성격 및 구성 방향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Ⅱ. 편성·운영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영옥	전남대학교 교수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Ⅲ. 실내·외 환경 구성	정미라	경원대학교 교수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
Ⅳ. 교수·학습 방법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Ⅴ. 평가	황해익	부산대학교 교수
	박경자	연세대학교 교수
2부		
Ⅰ. 신체운동·건강	이미정	여주대학교 교수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오경숙	면일어린이집 원장
Ⅱ. 의사소통	이연승	경성대학교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우현경	한전 빛사랑어린이집 원장
Ⅲ. 사회관계	문미옥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혜상	서울여자대학교부속어린이집 원장
	성용혜	서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원감
Ⅳ. 예술경험	지성애	중앙대학교 교수
	강정원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신금호	대구대학교부속유치원 원장
Ⅴ. 자연탐구	이정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임수진	동신대학교 교수
	김현진	중앙청사 푸르미어린이집 원장
연구협력관	안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오경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유정민	보건복지부 사무관
	주 철	보건복지부 사무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발 행 일 : 2013년 2월
- 저작권자 : 교육과학기술부
- 발 행 처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디자인 인쇄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파본 및 교환문의(031-906-7735)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2339-01

ISBN 978-89-98236-21-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값 3000원